2·28 횃불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Vol.96
2024 WINTER
제24권 4호 통권 96호

특집. 제24차 2·28민주포럼과 제4차 2·28경북포럼 지상중계

R&B뮤즈 박정현 출연
2·28민주운동 헌정 공연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청마 유치환 시인과
신석필 화백

초·중·고교생 대상 역사체험
'2·28민주나들이'
프로그램 개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COVER STORY



2·28민주운동 제50주년을 맞아 2010년 5월 30일
대구시 남구 대구고 교정에 세워진 2·28 조형물.
표지석에는 '검은바닥에서 분연히 솟아오른 다섯기둥은
암흑시대를 뚫고 저항한 오엽(五葉) 무궁화 교표(校標)의
대구고 선배님들의 민주화 운동을 상징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연회비 정회원 30,000원 / 후원회원 1,000,000원 이상입니다.
평생회비 원로,유공자 100,000원 이상 / 60세 이상 200,000원 이상 / 60세 미만 300,000원 이상입니다.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예금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4 winter **Vol. 96**

04
햇불시론
혼란과 분열, 이순신 정신으로 통합할 때

06
2·28 주요뉴스
1) 2·28민주운동 헌정 '얼음 사이 핀 꽃' 공연
2) 전국 112개교 학생이 참여한 2·28학생문학상 시상
3) 초·중·고교생 대상 역사체험
'2·28민주나들이' 프로그램 개설
4) "2·28민주운동을 공부하자"
서울대 교수·대학생·광주시민 등 견학러시
5) 연인원 1,200명이 수강하는
2·28대학 11기 과정 개강
6) 30~50대 여성회원이 주축인
2·28시민어울림단 활발한 활동
7) '민주운동을 되새기며' 2·28 詩 낭송회 개최
8) 임원과 직원 복무규정 중점논의
2·28원로자문회의와 이사회 개최
9) TK지역사회 민주리더 양성하는
청년아카데미 제6기 개강
10) 최영조 교수에게 유화기법 수강
2·28유화반 제11기 과정 운영
11)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청마 유치환 시인과 신석필 화백
12) 주호영 국회부의장 - 2·28 주역들과 간담회





32
특집. 제24차 2·28민주포럼과
제4차 2·28경북포럼 지상중계

60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1
경주가 출발점인 실크로드 중국대륙 횡단하는 '소통의 길'

72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정치의 문제다

80
"인륜을 거스르는 험악한 시대
사람도리를 실천한 한훤당을 떠올린다"

88
달구벌 풍수 산책 7
남평문씨 인흥세거지의 '三相미학'(상)

혼란과 분열, 이순신 정신으로 통합할 때



윤 동 한
영남대 총동창회장·한국콜마 회장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제 정세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정치가 당파적으로 흘러 날이 갈수록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는 사회상이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파간, 남녀간, 지역간 , 빈부간 분열은 혼란한 시대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도 다르지 않아 정치 사회적으로 지역간 이익을 두고도 심각한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

이 혼란한 정국과 시대를 통합하고 소통하며 분열을 치유할 누군가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과연 누가 나서서 멈추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나라가 불통이다. 갈등을 잠재울 치료제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은 누가 나와서 이야기해도 전체와 소통하고 서로를 도닥이며 아우를 수 없게 됐다.

사실 이제 와서는 갈라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네 삶이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대 주요 선진 제조공업국으로 성장했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가전 등 못 만드는 것이 없는 자랑스러운 제조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다 못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될 정도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에 갈라진 시대상이 사회 통합을 철저히 막고 서 있다.

이 분열의 나라를 치유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를 다듬고 보듬어 줄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갈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믿는다. 그는 빈부, 보수 진보, 지역과 신분 고하에도 차별 없이 대했던 보기 드문 정돈된 인격자였다. 장군은 문무를 통합했고 칼찬 선비로,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온갖 전쟁터에서 활약했다.

권력에 굴하지 않았고, 사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전라좌수사로 경상도 앞바다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치렀다. 서울서 태어나 한번도 바다와 인연이 없었던 그가 명량해전과 부산포, 한산, 노량에서 싸워 23전 23승을 거두었다. 심지어 그가 군관으로 있을 때는 함경도까지 올라가 목숨을 건 전투로 나라를 지켰다. 이 때문에 아무도 장군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전국구였다.

그가 수군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잠시 고흥만호를 지낸 것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삼도수군통제사로 적을 공략할 때는 추상같이 싸늘하고 담대했으면서도 백성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전사한 군졸을 위해 직접 제문을 지어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쳤다. 강추위에 벌벌 떠는 선상의 수군을 염려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 고위직의 농단에는 서릿발처럼 강하게 대처하면서도 굶어 죽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다.

이런 연유로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분열된 이 나라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해법이자 치료약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분을 불러와야 우리 속의 갈등과 대립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를위해 대구에서도 (사)서울여해재단의 '이순신학교'를 개강했다. 이순신 학교의 지향점은 분열과 갈등의 해소와 애민·애국 사상의 전파와 보급이다. 마침 이 정신은 2·28 민주화 운동과 맞닿아 있다.

2·28 민주화운동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 모두 국가와 민중을 위한 헌신적인 정신을 보여주었다. 2·28 민주화 운동은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운동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동안 나라의 생존을 위한 염원으로 온몸을 불태운 분이다. 2·28 민주화 운동과 장군의 임진왜란 구국 활동은 각각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내외 억압에 저항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간절하게 사욕을 내려놓고 대동단결하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믿고 있다.

2·28 주요뉴스 MAIN NEWS

① 2·28민주운동 헌정 '얼음 사이 핀 꽃' 공연
② 전국 112개교 학생이 참여한 2·28학생문학상 시상
③ 초·중·고교생 대상 역사체험 '2·28민주나들이' 프로그램 개설
④ "2·28민주운동을 공부하자" 서울대 교수·대학생·광주시민 등 견학러시
⑤ 연인원 1,200명이 수강하는 2·28대학 11기 과정 개강
⑥ 30~50대 여성회원이 주축인 2·28시민어울림단 활발한 활동
⑦ '민주운동을 되새기며' 2·28 詩 낭송회 개최
⑧ 임원과 직원 복무규정 중점논의 – 2·28원로자문회의와 이사회 개최
⑨ TK지역사회 민주리더 양성하는 청년아카데미 제6기 개강
⑩ 최영조 교수에게 유화기법 수강 – 2·28유화반 제11기 과정 운영
⑪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청마 유치환 시인과 신석필 화백
⑫ 주호영 국회부의장 – 2·28 주역들과 간담회

1

제64주년 2·28민주운동 헌정 '얼음 사이 핀 꽃' 공연

- R&B뮤즈 박정현 출연

제64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얼음 사이 핀 꽃'이 지난 11월 9일 오후 7시 대구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열렸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2·28민주운동 64주년과 더불어 지난 7월 대구 최초의 광장으로 탄생한 '2·28자유광장'의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2·28민주운동 유공자, 회원, 기관단체장, 대구·경북 시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소개 순서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왼쪽)과 박영석 2·28기념사업회 회장이 일어서서 관중들의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헌정공연은 4부로 구성됐다. '가을도 당신을 기다렸으니'를 주제로 한 1부는 대구시립합창단이 출연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지휘는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맡았다. 김인재 지휘자는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이다. 이번 헌정공연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야에서 들꽃처럼'을 주제로 한 2부는 제2회 2·28 기념 전국청소년 댄스가요제 입상팀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렸다. 대구 청소년 댄스팀인 태그와 통영 청소년 댄스팀 어스가 함께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첫걸음을 내딛은 2·28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 입구에서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선 모습.

'아직 끝나지 않은 함성'을 주제로 한 3부는 브리즈 뮤지컬 컴퍼니가 출연했으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뮤지컬로 표현했다. 브리즈 뮤지컬 컴퍼니 손현진 대표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무대에서 표현할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영광이다. 2·28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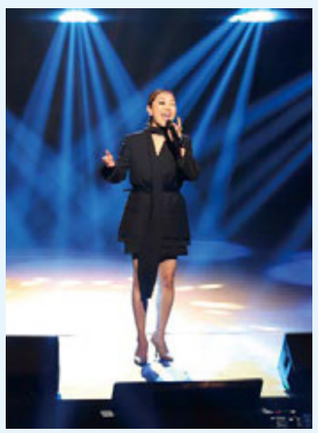
'얼음 사이 핀 꽃'을 주제로 한 4부는 인기가수 박정현이 출연해 대미를 장식했다. 가수 박정현은 "제64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에 참여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제64주년 2·28민주운동 헌정공연

1부(대구시립합창단 공연)부터 4부(인기가수 박정현 공연)까지의 공연 장면을 화보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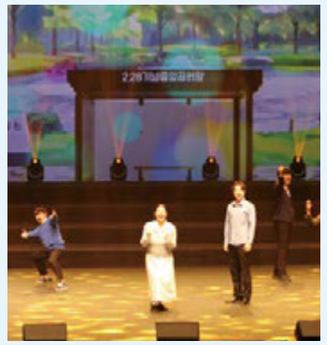



대구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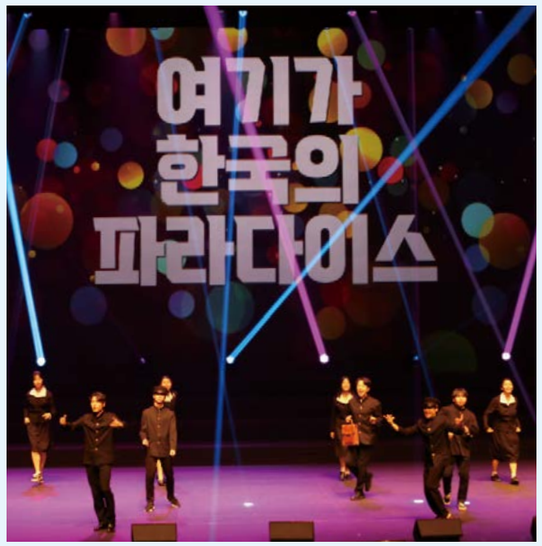











여기가
한국의
파라다이스



2

제24회 2·28학생문학상 대상은 김시윤(운문), 김리나(산문)

2·28 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27일 2·28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4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2·28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수상자, 학부모,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12개교에서 971점을 응모했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 2점, 금상 18점, 은상 30점, 동상 41점, 입선 50점 등 14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운문 부문의 경우 대구왕선중학교의 김시윤 학생이 '붉은 파도'로, 산문 부문은 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고등학교의 김리나 학생이 '어린왕자의 장미와 우리의 민주열사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경북공업고등학교, 왕선중학교, 대구명덕초등학교가 받았다. 수상작은 2·28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2·28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제24회 2·28학생문학상 전국 공모전 시상식을 마친 후 2·28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과 임직원, 하청호 심사위원장 등이 수상자와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문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리나 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아버지 김성윤 씨는 "리나의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에 참여했던 경북고 출신이라서 수상의 의미가 더 큰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육사 출신으로 독재정권의 중심이었던 하나회의 가입을 끝까지 거부하셨던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딸인 리나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8학생문학상 공모전의 높은 참여율은 2·28민주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2·28민주정신을 기리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청호 심사위원장(대구문학관장)은 "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2·28민주운동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 어린 성찰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이 제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높은 경쟁 속에서도 훌륭한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2·28민주운동과 문학에 계속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

초·중·고교생 대상 역사체험 '2·28민주나들이' 프로그램 개설

2·28평생교육원(원장 최교만)이 지난 10월부터 대구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28민주 나들이'라는 타이틀로 2·28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12월 중순까지 모두 9개교에서 19개반(또는 동아리)으로 나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인원은 약 400명이다. 2·28민주나들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2·28기념탑과 2·28자유광장을 견학하고 2·28민주운동 당시의 주역들을 만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2일 현풍중학교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이날 기념탑과 회관을 둘러보고 최용호 2·28민주운동 주역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월24일에는 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체험을 한 후 여행웅 주역과의 만남시간을 가졌다.

1 2·28민주운동 역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칠성초등 학생들이 여행웅 주역과의 만남시간을 가진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2·28민주운동 역사체험 지도위원들이 기념사업회 간부들과 함께 2·28기념탑을 찾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 2

4

"2·28민주운동을 공부하자" 서울대 교수·대학생·광주시민 등 견학러시

2·28역사를 체험하고 공부하기 위해 2·28기념회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5명과 학생 70여 명이 전시관을 견학했으며, 10월 12일에는 '지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경북대 학생 70명이 기념회관을 찾았다.

10월 19일에는 광주국제교류센터 학생과 학부모 34명이 계명대 Warren Parsons교수의 안내로 기념회관을 방문, 백재호 기획홍보국장의 특강("2·28민주운동으로 본 현대사 읽기")을 들었다. 10월 19일과 26일에는 광주지역 비정규노조 90명이 방문해 백 국장의 특강을 듣고 2·28전시관을 견학했다.

2·28기념회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기념사업회 백재호 기획홍보국장으로부터 특강을 듣거나 전시관 견학을 하고 있다.





5

연인원 1,200명이 수강하는 2·28대학 11기 과정 개강

2·28평생교육원은 지난 9월 11일 2·28대학 개강식을 열고 제11기 과정을 시작했다. 2·28대학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기수마다 연인원 1,200명이 넘게 수강하는 2·28기념사업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백재호 2·28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장의 특강(‘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을 시작으로 문을 연 2·28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28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9월 25일에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수정치란’이라는 주제로, 10월 2일에는 정원희 여행작가가 ‘여행! 마시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정홍구 법무법인YK 전문위원이 ‘생활 속 범죄예방’, 10월 23일에는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 관장이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10월 30일에는 최혜영 전남대 명예교수가 ‘빛고을과 달구벌’, 11월 6일에는 인드라스님이 ‘노래가 곧 수행이다’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1 2·28대학 수강생들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백재호 기획홍보국장의 개강특강을 듣고 있다.
2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수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



1



2

6

30~50대 여성회원이 주축인 2·28시민어울림단 활발한 활동

2·28시민어울림단(단장 권오영)의 월례회의가 지난 9월 3일 2·28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4분기 월례회의 일정 △회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회원 확충 운동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백재호 2·28 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장이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6·3항쟁’을 주제로 특강(사진)을 했다.

2·28시민어울림단은 지난 10월 8일에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2·28기념탑과 2·28자유광장에서 11명의 회원이 참석해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2019년 5월 21일 발족한 2·28시민어울림단은 30~50대 여성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2·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역사해설, 교육, 문화활동 등을 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2·28기념탑 주변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28시민어울림단 회원들.





7

‘민주운동을 되새기며’ 2·28 詩 낭송회 개최

‘2·28민주운동을 되새기며’라는 주제의 시낭송회가 지난 10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재능시낭송협회(회장 신정숙)가 개최한 ‘달구벌 시愛 물들다’라는 주제공연에서 ‘2·28민주운동을 되새기며’는 3부에서 선보였다.

이날 낭송된 시는 故 서지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하청호 대구문학관장의 ‘무릎학교’, ‘형아 형아’ 등 8점이며 故 하청일 선생의 2·28민주운동 결의문도 낭독됐다. 대구재능시낭송협회 회원 대부분은 2·28기념사업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1960년 2월 28일 당시 대구지역 고교생들의 시위모습이 담긴 영상을 배경으로 시낭송협회 회원들이 교복차림으로 2·28 관련시를 낭송하고 있다.



8

임원과 직원 복무규정 논의 원로자문회의와 이사회 개최

2·28기념사업회 제2차 원로자문회의(의장 권국현)와 이사회(의장 박영석)가 지난 8월 28일과 29일 2·28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 원로자문회의는 2·28민주운동 당시의 주역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원로자문회의와 이사회에서는 임원과 직원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한 의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 심사도 이루어졌다. 주요 보고사항은 △2·28자유광장 조성 및 명명식과 감사패 전달 △장주효 2·28대회장 장례식 및 안장식 △장병철 2·28원로자문회의 위원 별세 △유공자 현창사업(근조기 사용) 시행 △대구일보 2·28민주운동 기획보도 등이다.

2·28기념사업회 원로자문회의(사진 左)와 이사회 모습.



9

TK지역사회 민주리더 양성하는 청년아카데미 제6기 개강

2·28청년아카데미가 지난 9월 10일 개강식을 열고, 제6기 과정을 시작했다. 청년아카데미는 대구경북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말까지 12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6기 수강생은 모두 40명이며, 대학생, 교원, 대학교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강의는 2·28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의 특강(‘2·28민주운동과 민주주의’)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보수정치란 무엇인가’, 10월 17일에는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대표가 ‘청년 리더의 글쓰기’, 10월 24일에는 김보영 영남대 교수가 ‘대한민국 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10월 12일에는 수강생들이 안동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찾아 선비정신에 대해 공부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다졌다.

지난 2020년 개설된 2·28청년아카데미는 지금까지 5기 과정을 마쳤으며, 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5기 과정부터는 1년 과정이 아닌 반기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2·28기념사업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는 053-423-0228.



2·28청년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지난 9월 10일 박영석 회장의 특강을 들은 뒤 2·28기념사업회 임원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년아카데미 제6기 수강생들이 지난 10월 12일 안동 도산서원에서 선비정신을 체험한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10

최영조 교수에게 유화기법 수강
2·28유화반 제11기 과정 운영

2·28평생교육원은 지난 9월 10일 2·28유화반 개강식을 갖고 제11기 과정을 시작했다. 지도교수는 최영조 전 동국대교수가 맡았다. 유화반은 2·28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2·28유화반은 기본적인 유화기법을 학습한 이후, 최 교수로부터 2·28민주운동기념탑, 2·28민주운동 참여 고교 내에 있는 2·28조형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 2·28민주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소재로 유화레슨을 받는다.



1



2

1 최영조 교수
2 2·28유화반 개강식을 마친 수강생들과 박영석 회장 등 2·28사업회 관계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청마 유치환 시인과 신석필 화백

전문(前文)

1960년 3월1일자 대구일보 석간 4면. 이 지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이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여한 '2·28특집판'이다. 당시 정국상황은 2·28특집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대구일보 이근우 문화부장이 지면을 마감한 뒤 피신할 정도로 엄혹했다.

2·28특집판의 주인공은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란 제목의 '2·28 대표시'를 쓴 김윤식 시인만이 아니다. 당시 이 지면에는 청마 유치환 시인이 쓴 장문의 시론과 '컬…'이라고 표시된 월남 작가 신석필 화백의 추상적인 삽화도 게재됐다. 2·28민주운동과 깊게 인연을 맺은 청마와 신 화백에 대해 최근 대구일보 김상진 편집부국장이 특집으로 보도한 내용을 횃불지에 전재한다. (편집자 주)



대구일보 1960년 3월1일자 석간 4면.
'인간이라는 기계'란 제목의 청마시론 · 신석필 화백의 삽화가
김윤식 시인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과 함께 게재돼 있다

2·28민주운동과 청마 유치환 시인



청마 유치환 시인의 글이 새겨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 비문.

경주고등학교 교장사임 뒤 대구에서 시 쓰는데 몰두

청마 유치환 시인은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1960년 대구에 머물고 있었다. 1959년 9월 경주고등학교 교장을 사임한 청마는 당시 대구에서 시를 쓰는 데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28일 오후 이근우 문화부장이 건넨 김윤식 시인의 저항시를 읽고 나서 곧바로 쓴 시론의 제목은 '인간이라는 기계- 대구의 고교생 데모사건'이다.

경남 통영 청마문학관에 전시된 청마 흉상.



청마는 이 시론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필연한 돌발'로 규정하면서 '탁한 개울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온 듯 청량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킨 어른들에 대해 "인간이 기계 구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을 야기케 한 우매한 학사행정자들은 마땅히 힐책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독재정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노릇에 충실했던 '인간'을 꾸짖은 것이다.

2·28민주운동을 평가한 시론의 일부를 소개한다. "참으로 이번의 학생데모 사건은 우울하고도 못마땅한 공기 가운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제 눈을 제자신에게로 돌려 챙겨볼 충격과 기회를 준 점에 있어서 근래 없는 의의깊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 젊은이들의 행위야말로 우리 겨레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의젓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천명한 저 3.1사건이나 광주학생사건에 정신이 바로 직통되어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떳떳하였는가?"라고 했다. 시론의 마지막에는 '글 쓴이=예술원 회원'이라고 적었다.

1961년 4월10일 건립된 2·28기념탑 비문도 작성

청마와 2·28민주운동의 인연은 시론만이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다음해인 1961년 4월 10일 남구 명덕로타리에 건립된 2·28민주의거기념탑의 비문을 청마가 지었다. 이 기념탑은 2·28민주운동 30주년을 맞은 1990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옮겨졌다. 그리고 기념탑의 명칭도 '2·28민주운동기념탑'으로 통일됐다.

비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권세 앞에 스승마저 썩어진 그 제지함도 물리치고 분연히 교문을 박차고 일제 뛰어나와 몰려드는 경찰의 빗발같은 철권과 발길에도 무릅쓰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소리소리 외치며 온 거리를 메꾸어 묻었으니, 이날이 1960년 2월 28일이더라. (중략) 이들 젊음의 분노인즉 불의로 교묘턴 이승만 독재정권을 마침내 쓰러뜨린 저 거룩한 4·19혁명을 진실로 있게 한 길잡이가 되었으니 어찌 갸륵하고 장하다 아니하랴.'

유치환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

한국 근대문학사의 거목인 청마는 1908년 음력 7월14일 경남 통영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극작가 동랑 유치진이 청마의 맏형이다. 동래보통학교와 일본 부장중학교를 거쳐 1927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으나, 1928년 중퇴했다. 1931년 「문예월간」에 '정적'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37년 통영협성상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30년 간 대구·경북과 경남에서 교직에 몸담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주고등학교와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청마는 40여 년 간의 열정적인 시작활동을 통해 모두 14권에 달하는 시집과 수상록을 출간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깃발>, <수(首)>, <절도(絶島)> 등이 있다. 1947년 한국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시인상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문화상, 아시아재단 자유문화상, 제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부산시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전쟁 때는 문총구국대 일원으로 참여했다. 해방 직후 생명에의 열애를 노래한 점에서 서정주와 함께 '생명파 시인'으로 불렸다.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7년 2월13일 부산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처음에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묻혔으나, 경남 양산을 거쳐 현재 거제시 방하리 산록으로 이장됐다.

청마를 기리는 청마문학관은 경남 통영시에, 청마기념관은 인접한 거제시에 각각 건립됐다. 하지만 이곳에는 청마가 2·28민주운동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2·28민주운동기념탑 비문에 새겨진 청마의 글도 소개돼 있지 않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청마문학관을 찾았을 때 귀띔을 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홍종흠 원로자문위원은 "그 당시 시인으로서의 청마든, 지식인으로서 청마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고였다. 특히 대구에 거주하는 기간에 대구일보에 장문의 시론을 썼으며, 2·28기념탑을 건립할때 비문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청마문학관에 갔을 때 청마의 귀한 글이 2·28기념탑 비문에 있다고 알려준 뒤 전시해 달라고 했으나, 다시 방문했을 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영석 회장은 "청마 선생을 2·28민주운동을 응원하는 최고의 지성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마문학관에 이같은 소중한 내용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의 출생지를 둘러싸고 유가족과 통영시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청마의 딸 3명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아버지의 출생지가 잘못 기재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통영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들은 유치환 선생이 거제에서 태어나 통영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작시에서 스스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밝힌 만큼 출생지를 거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통영에서 자랐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마의 출생지 논란은 통영이 거제와 통영으로 나뉘면서 불거졌다. 2000년 통영시가 청마문학관을 먼저 세웠지만, 거제시도 유족들 진술을 근거로 2008년 청마기념관을 준공했다.(대구일보 2024년 9월 26일자 보도)

2·28민주운동과 신석필 화백

1951년 1·4후퇴 때 월남 대구 남산여고에 재직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1960년 2월 28일. 신석필 화백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 때 고향인 황해도 사리원을 떠나 월남한 뒤 부산을 거쳐 대구에 정착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대구 남산여고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자유로운 작품 제작과 발표가 차단된 북한을 떠나 스케치북과 도시락 한 개만 들고 부인과 함께 월남했다. 부인이 고향에서 피란을 떠날 때 품속에 지녀온 금붙이를 팔아 타향에서 어려운 화가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그날 오후 고등학생들의 시위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김윤식 시인이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란 제목의 저항시를 쓴 뒤 대구일보 이근우 문화부장에게 전화를 했고, 저항시를 건네받은 이근우 부장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 길로 이근우 부장은 이 저항시를 청마 유치환 시인에게 보여주고 시론을 청탁했다. 이어 이근우 부장은 청마가 시론을 쓰는 동안 중구 남산동으로 신석필 화백을 찾아가 삽화를 부탁했다. 그렇게 탄생한 지면이 대구일보 1960년 3월1일자 석간 4면이다.

'2·28 특집'에 실린 신석필 화백의 추상적인 화풍은 월남 작가에게서 나타난 전후 미술의 특징이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대구의 화단이 구상을 고집한 반면, 월남 작가들은 추상을 선보였다고 한다. 김영동 미술평론가는 "월남작가들이 기존의 자연주의 화풍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같은 화풍이 대구화단의 한 축을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이로써 대구화단이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지면서 풍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석필 화백에게 대구는 제2의 고향이면서 생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 곳이다. 비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지만, 대구에서 제자를 키우고 이곳 작가들과 함께 어울리며 향토미술의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대구 미술계의 어른으로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대구문화' 2002년 8월호에 실린 고 신석필 화백. <임언미씨 제공>

신석필 화백의 삶과 예술

신 화백은 1920년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1947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학교인 황해도립 해주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부터 6·25전쟁 때까지 평양국립미술학교 조교로 재직하기도 했다. 1951년 1·4후퇴 때 월남해 이중섭, 최영림, 박항섭 등 12명과 함께 월남화가단을 구성했으며, 1958년부터 대구에서 작품활동을 펼쳤다.

1953년 부산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2016년까지 국내는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서 모두 62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대구지역 화단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한 원로화가이자, 최고령 현역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월남 작가로 기억하고 있다. 국전 입선과 대구시문화상, 금복예술문화상, 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이상회, 자유미협, 구상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국제아트클럽 COMET 창립회원과 한국미술협회 고문, 구상전 창립회원, 대구국제비엔날레 창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57년부터 20년간 대구남산여고와 왜관 순심중·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1975년부터 20년간 경북대와 영남대에 출강했다. 1970년대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근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화실 겸 동서미술학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지역 화단의 후배들은 기억한다. 2017년 12월24일, 만 97세로 대구에서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자택을 인근 아파트로 옮겼다.

신 화백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작고하기 두 달 전까지 개인전을 열 정도였다. 마지막 전시회가 된 62회 개

인전은 2017년 10월 봉산문화거리에 위치한 예송갤러리에서 '황혼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란 콘셉트로 열렸다. 그 당시 하루도 쉬지 않고 붓을 잡았다고 한다.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남산동에서 봉산문화거리까지 걸어다닐 정도로 건강도 유지했다. 신 화백은 성품과 생활태도에서도 후배들에게 모범이었다고 한다. 김진혁 학강미술관장은 지역 일간지에 쓴 칼럼을 통해 "선생을 뵈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논어에 나오는 '온량공검(溫良恭儉)'이다.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모든 면에서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인 일생을 사셨다"고 회고했다.

신 화백의 작품은 월남 작가이기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영원한 향수와 어린 시절 겪었던 동심의 세계에 대한 정서가 화폭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실향에 대한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냈다. 향수의 미학을 바탕으로 대상을 변형, 왜곡시키면서 독특한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화풍은 몽환적이면서 신화적인 느낌도 든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그는 고향을 그리는 향수 어린 주제와 색채를 자주 썼지만, 이후 구상과 추상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제와 감정·표현에 충실한 작품세계를 이뤘다.

2015년 유성건설 김인한 회장이 대구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456점 중에 신석필 화백의 작품 36점이 있다. 그 중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1960년 전후의 작품은 1959년 작품인 '이별의 곡'과 '강변의 가족들'이다. 실향의 아픔이 녹아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이별의 곡'은 초점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붓놀림이 독특하다. 신 화백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거야. 이거는 우리 고향에서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고. 가족 절반을 놔두고 절반을 데리고 온건데…그 때 이별하는 장면…"이라고.

(2024년 10월 10일 대구일보 16면 보도)

12
주호영 국회부의장 2·28 주역들과 간담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11월 16일 2·28 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박영석 기념사업회 회장과 권국현 원로자문회의 의장, 최용호·홍종흠·여행웅·김동환 원로 등 2·28 민주운동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며, 국가기념일인 2·28 민주운동 정신을 초·중·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 부의장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8 주역들과의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왼쪽부터 최용호·권국현·홍종흠 주역, 주 부의장, 박영석 회장, 여행웅·김동환 주역.



제24차 2·28민주포럼과 제4차 2·28경북포럼 지상중계

전문(前文)
1) 팬덤정치 포퓰리즘이냐, 민주적 대안이냐
2) 한국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3)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
4)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위상

한국판 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전문(前文)

2·28기념사업회 부설 2·28연구원(원장 최병덕)은 지난 10월 2일 2·28기념회관에서 '한국판 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를 주제로 제24차 2·28민주포럼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오후에는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균형과 조화'라는 주제로 제4차 경북포럼을 개최했다.

2·28민주포럼은 2·28 정신과 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제24차 민주포럼에서는 하세헌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2건의 학술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는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팬덤 정치, 한국판 포퓰리즘 정치인가 아니면 새로운 민주적 대안인가')과 윤지



제24차 2·28민주포럼 주제발표자와 토론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로부터 윤지성 DIGIST 교수, 도모연 계명대 교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박상훈 연구위원, 박영석 회장, 하세헌 경북대 교수, 정재형 변호사, 박정훈 서강대 교수.



제4차 2·28 경북포럼을 마친후 2·28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과
원로자문위원들이 주제발표자 및 패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성 DIGIST 교수('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가 맡았다. 토론회 패널은 도묘연 계명대 교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서강대 교수, 정재형 변호사가 참석했다.

경북포럼은 매년 2차례씩 경북지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제4차 2·28경북포럼에서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가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이승아 부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이 '한국 경제발전 과정과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맡았고, 이규철 금오공대 교수, 이상우 새마을재단 연구소 소장, 송상윤 경북대 교수, 박종문 영남일보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24차 2·28민주포럼과 제4차 2·28경북포럼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발표자료에 기재된 주석과 참고문헌, 일부 그래프와 도표 등은 지면 사정상 생략했다. (편집자 주)

팬덤정치 포퓰리즘이냐, 민주적 대안이냐



박 상 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팬덤정치의 산실

팬덤 정치란 '선호'가 아니라 '혐오'에 기초를 둔 대중정치다. 선호는 서로 다른 다원적 선택을 이끄는 동기인 반면, 혐오는 하나의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을 억압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시민 집단들이 서로 달리 가진 이익과 열정을 표출하고 대표하고 조정하기 어렵게 한다. 정당과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혐오는 다른 정당을 부정하는 '일당제적 심리'를 갖게 한다. 당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의 팬덤 리더 이외에 다른 대안을 억압하는 1인 독주 정당을 낳는다. 정당 다원주의(party pluralism) 대신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가져오는 것이 팬덤 정치다.

과거 3김 시대나 노무현 시대에도 열성적 지지자들은 있었다. 그들의 정치 운동도 팬덤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르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열정은 굳이 표현하자면 '팬심 정치'라 할 수 있다. 좋아함에서 발원하는 팬심과는 달리, 누군가를 '내부의 적'이라며 집단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공격적 열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비이성적 열광에 가까운 것이 팬덤 정치다. 본질적으로 팬심은 지지와 선호에 그 기초가 있는 반면, 팬덤 정치는 혐오와 배제, 적대와 증오의 열정이 핵심을 이룬다.

팬덤정치는
정치양극화의 심화판

팬덤 정치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2020년 이후다. 그 이전까지 팬덤 정치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였다. 물론 유사한 현상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학자들은 이를 '정치 양극화' 현상으로 불렀다. 주요 언론 기사에서 팬덤 정치와 정치 양극화 관련 용어의 출현 빈도를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치 양극화 현상은 2009년을 전후해 이슈가 된 용어다. 그때 이후 정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대략 10년 정도 지나 폭발한 것이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현상이자 '정치 양극화의 심화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특징을 갖는다.

2019년에 나타난 정치 양극화 현상의 결정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폭력 충돌이었다. 이때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9명이 고발되었고, 국회는 80일 이상 열리지 못했으며, 야당은 국회를 떠나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치 양극화 없는 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8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도 정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삼고 개선하자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변화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정치 양극화가 이제 시민사회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2019년 말,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앞세운 역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바로 이 두 번째 정치 양극화 국면의 끝에서 폭발한 것이 팬덤 정치다.

유럽 포퓰리즘과는 다른
한국 팬덤정치

한국의 정치양극화는 ① 정치 양극화의 연장선에 있는 특징과 ② 정치 양극화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특징을 나눠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정치 양극화란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를 가리킨다. 거대 양당을 주축으로 적대적 갈등을 동원하는 극단적 당파성 정치가 정치 양극화다. 이 점에서 양대 주축 정당이 아닌 제3당이 중심이 된 유럽의 다당제 포퓰리즘 정치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보통의 양극화라면 두 정당 내부적으로는 응집성이 커지고 당내 파벌 정치가 약화되는 게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주로 당내부에서 작용한다. 당내 파벌의 구조도 특징적이다. 대개는 최고 권력자 개인과의 거리감을 두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친이와 친박', '친문과 비문', '친윤과 비윤', '친명과 비명' 같은 형태가 대표적이다. 일종의 사인화된 당내 권력 투쟁이 팬덤 정치를 불러왔다.

양극화 정치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다. 정당 내 계파들은 성장파 대 복지파, 평화파 대 동맹파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중심으로 친-비-반의 접두사를 붙여야만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민과 감세 정책이 중심이 된 미국의 트럼피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유럽의 좌파 포퓰리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우파 포퓰리즘 등의 유형과는 다르다.

국회 안에서의 양극화 정치는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의 정치'로 이어졌다. 의회정치의 규범과 선례 같은 불문율이 무시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정중함의 예의'도 실종시켰다. 이를 넘어 야유와 경멸의 언어를 동반한 사나운 태도나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양극화 정치는 팬덤 정치로 넘어갔다. 국회 밖 팬덤 지지자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정치하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과도한 대통령 관련 의제
정당의 낮은 자율성이 특징

대통령 의제가 과도한 것이 양극화 정치, 팬덤 정치의 특징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불러내는 정치를 하고, 여당은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를 한다. 국회를 교착 상황으로 이끄는 쟁점은 대부분 대통령과 관련된 의제이고, 이런 쟁점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사라지거나 입장이 쉽게 바뀌고 만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정치는 '진짜 싸움'이 아니라 '가짜 싸움'에 가까웠다. 대통령 관련 의제를 두고는 사활적으로 싸우면서도, 돌아서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화시킨 것이 팬덤 정치다. 정치의 일관성, 책임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로 넘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정당의 낮은 자율성을 동반하는 정치 또한 양극화 정치나 팬덤 정치의 특징이다. 아마도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양극화라면,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커지고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의 경향이 강화되는 게 정상일 것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집권당의 지휘 권한은 커지지 않았다.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의원 개인의 역할은 커진 반면 정당의 독자적 영향력은 계속 약해져 왔다.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의 낮은 자율성은 야당으로 하여금 집권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싸우게 만들고, 그 때문에 집권당이 더욱 야당과 대립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정당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다.

팬덤 정치는 열정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특정 개인에 대한 '선호의 강도'나 '적대의 강도'가 높은 열정적 소수(passionate minorities)들이 지배하는 정치다. 이들은 당 안팎에서 온라인 당원이나 강성 지지자로 역할을 하면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평등한 참여'와 '다수 지배'의 원리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있다. 특정 입장을 가진 소수 열정 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은 당내 경선, 즉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내 경선을 결정짓는 표의 크기가 본선에 필요한 표의 크기보다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구가 평등하게 투입되어 다수의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합의(consensus of views)는 물론이고 지지의 강도가 다른 집단들 사이의 합의(consensus of intensity)도 필요한데, 팬덤 정치는 관점의 다원화보다 일방적으로 열정적 강도에 의존하는 정치를 낳았다. 넓은 대표의 범위가 희생되는 대신 소수가 가진 강렬한 적대의 좁은 열정이 지배하는 정치다.

팬덤리더는 정당정치의 파괴자

팬덤에 의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선호에 기반을 둔 '다원 민주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일종의 '일원주의적 민주주의'다. 이견과 선호의 다양성은 다원 민주주의의 생명원리다. 팬덤 민주주의는 이를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팬덤 민주주의는 하나의 옳음을 신봉하고 다른 옳음을 적대한다. 오늘날 인류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시민권을 갖게 해, 현실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 그에 반해 팬덤 정치, 팬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당에서만 옳음을 찾는다는 점에서 '일당제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심리상태를 갖는다. 같은 당 안에서는 오로지 한 사람의 팬덤 리더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인화(私人化)된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20세기 전반기의 파시즘과 나치즘은 강력한 정당 조직이 뒷받침한 모델이다. 정당이 사실상 국가였던, 일종의 당-국가 체제였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정당이라는 공식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정당의 저발전을 동반하는 것이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는 두 축으로 작동한다. 한 축은 팬덤 리더이고, 다른 축은 팬덤 대중이다. 이 가운데 팬덤 정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팬덤 리더 쪽이 아니라 팬덤 대중 쪽에 있다. 단임제 대통령제에다 의원 교체율이 높고 '비대위'와 '혁신위'를 짧은 주기로 반복해 온 정당정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당과 정당 지도자의 지위는 늘 위협받는다. 따라서 야심을 가진 정치가일수록 정당 발전에 대한 책임감 없이 제도 밖 팬덤 대중의 동원에 의존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팬덤 리더는 정당정치의 파괴자이자 나아가서는 팬덤 대중의 포로인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정견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지 않는 한 팬덤 정치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집단행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과 모바일 연결망의 발전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팬덤 정치는 효능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 '새로운 압력정치의 달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팬덤 정치는 효능감에 의존한다. 그들이 욕설과 비이성적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를 두렵게 하는 방법에 익숙하다.

민주주의 정당과 전체주의 정당의 차이점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서 당원이 주인 역할을 하는 정당에는 두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민주주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 유형이다. 민주주의 유형은 '당내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당원 중심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당직 선거와 공직 후보 선출 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당 재정을 책임지며, 풀뿌리 지역당 조직에 참여한다. 그래야 당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국가나 돈의 힘으로부터 자율적인 결사체로서 정당이 시민의 생활 세계 속에서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정당에서 당원은 '권리 당원'이 아니라 '권력 당원'에 가깝다. '의견의 다양함'보다는 '의견의 강렬함'을 키워서 영향력을 추구하려는 당원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특정 지도자를 옹립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효능감을 극대화하려 했다. 당 지도자와 강성 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당내 이견은 이적시되고, 당내 다양성의 위축은 곧 내부의 적을 색출하려는 열정을 키운다. 심하면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독일 나치당의 사례에서 보듯, 가족과 학교에서조차 당의 뜻을 강요하는 강성 당원들의 폭력이 허용될 수 있다.

그 결과 당원 규모는 최대화된다. 오늘날에는 인구 대비 7.1%가 공산당 당원인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록은 과거 독일의 나치당이 갖고 있다. 당시 나치당 당원은 인구 대비 13% 안팎인 850만에서 900만 명 사이였다. 지금 독일의 당원이 모든 당을 합쳐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유형의 당원 중심 정당은 다당제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선택 가능한 정치적 대안이 하나나 둘로 제한되면, 그만큼 시민이나 당원이 누릴 의견의 자유는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나 덴마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두 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우리와 같은 300석으로 환원해 계산하면, 지금 현재 10석 이상을 가진 정당 수는 핀란드가 7개(국민연합당, 핀란드인민당, 사회민주당, 중앙당, 녹색동맹, 좌파동맹, 스웨덴인민당), 덴마크가 11개(사회민주당, 좌파당, 온건당, 사회주의인민당, 덴마크민주당, 자유동맹, 보수인민당, 적록동맹, 급진좌파당, 신우파당, 대안당)다.

팬덤정치는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두 당이 의석의 94%를 차지하는 양당 독과점 구조다. 누가 방송과 검찰을 장악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당일 때는 여당스럽기만 하고 야당일 때는 야당스럽기만 할 뿐, 사실상 차이가 없는 '데칼코마니 양당제'에 가깝다. 당 내부는 상대 당이 없어지길 바라는 '일당제주의 심리'와 '이적 행위자 색출 열정'이 지배한다. 이런 상황에서 1000만 당원을 가진 정당의 세상이 온들 무엇이 좋아질까.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반하는 정당, 권력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서로 두 편을 나눠 이루어지는 주말의 거리집회가 보여주는 극단적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국가에 속하고, 같은 헌법 아래 있는데도, 너무나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열정이 시민들 사이를 가르고 있다. 신뢰할 만한 언론도, 존경할 만한 지식인도, 주권을 기꺼이 위임할 만한 정당도 찾아보기 힘든, '병든 사회'가 우리 앞에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야 할 때다.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정치, 책임감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의회정치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성장과 발전이 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된 삶과 병행 발전하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의 균열과 갈등, 적대와 증오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팬덤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하는 다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선호의 다양함, 이견의 풍부함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누군가에 대한 추종과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혐오만 있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 당원 주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즐겨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이기도 하다. 그들은 시민의 직접 참여와 당원의 직접 결정을 민주주의로 착각한다. 아니, 착각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위세를 키우려 한다. 시민과 당원을, '권리자'를 넘어 '권력자'로 만들려는 잘못된 열정이 팬덤 정치를 지배한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 폭력과 싸워야 했다. 팬덤 시민·당원이 권력자로 동원되고 있는 지금은 주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자들의 폭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당원이고 내가 시민이고 내가 주권자여서 내가 원하는 권력을 내가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무례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국회를 불 지르고 싶은 열정, 대통령 집무실을 폭파하고 싶은 열정, 내가 증오하는 정치가를 제거하고 싶은 열정을 부추기는 괴이한 정치다. 악성 포퓰리즘이다. 멈춰야 한다. 멈춰서 돌아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의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팬덤 정치는 길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윤 지 성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교수

여야 진영간의 극단적 대립 일상화

2024년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서 2년3개월간 대통령은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가 부결되는 결과는 '분점정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 들어서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고 임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오히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경우가 소수일 정도로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잇따른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사임, 탄핵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전과 달리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 대립의 일상화는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의 정치 갈등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신과는 생각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조롱을 쏟아내는 일들이 흔해졌다. 대화와 토론이 유명무실해지고 타협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이념양극화 동반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는 여러 정치적 이슈와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적대적 대결구도가 지속되어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건한 중도파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다운스가 설명했던 진보-보수 이념의 1차원 스펙트럼에서 중간이 두텁고 양쪽 꼬리가 홀쭉한 정규분포의 모습이 아니라 중간이 홀쭉하고 진보와 보수 양쪽의 꼬리가 두터운 쌍봉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Downs 1957; Levendusky and Pope 2011).

정치적 양극화를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념적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 엘리트들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들보다 이러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verse 1964; Jennings 1992). 그러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유권자들도 이슈태도에서의 일관성이 정치 엘리트와 비슷하게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념적 차이가 점차 커져왔으며, 이에 따라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Abramowitz and Saunders 2008).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정당별로 밀접하게 정렬이 되는 당파적 정렬(partisan alignment)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Levendusky and Pope 2011).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이념적 양극화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당파적 정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효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유권자와 국회의원 설문조사 자료를 문항반응이론(IRT)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로 갈수록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기반

다른 한 편으로 유권자의 양극화보다는 당파적 정렬이 심화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정동준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설문조사를 분석하면서 유권자들의 이념 분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인 2015년에 비해서 좌경화되었으나, 이것은 전반적인 이념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지, 중도층이 줄어들고 진보와 보수가 모두 동시에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양극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보다 당파적 입장에 따라서 이슈태도를 형성하는 당파적 정렬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5번의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를 분석한 김성연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에 따르면, 이념과 정책 선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에서 중도층의 비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진보적 유권자와 보수적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더 극단적으로 변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지원과 복지 확대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당파적 정렬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빠르게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당파적 정렬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치 양극화를 바라보는 또다른 관점인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연결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념적 양극화와는 달리 정당일체감에 기반한 정치 집단에 대한 호감도나 적대감에 기반한 개념이다(Iyengar et al. 2012).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보이지만,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보이는 현상이며,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폄훼로 인해 정서적 간극이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에 이념적 양극화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정서적 양극화는 정당일체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정책선호와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감정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감정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면 유권자 수준의 이념적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서적 양극화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미있는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는 모든 유권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호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정당에 반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무당파층 유권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안정적인 정당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메커니즘처럼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정서적 양극화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유권자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양극화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측면으로는 먼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들 수 있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 엘리트의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서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다(Fiorina and Abrams 2008). 정당의 양극화로 인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도층 유권자들은 소외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사이의 괴리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들의 당파적 대립이 심화되어 네거티브 캠페인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정치적 환멸이나 무관심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Ansolabehere and Iyengar 1995).

이와는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의 연구들이 있다. 정당들의 양극화로 인해서 각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이해하게 쉽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선거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Abramowitz and Stone 2006; Abramowitz and Saunders 2008).

또한 이로 인한 부가적 효과로 정당들의 양극화가 부동층 유권자들의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Hetherington 2009). 정당들이 서로 뚜렷하게 차이나는 정책들을 내놓을수록 유권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가 중요해지며,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유권자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투표율 상승 추세는 정치적 양극화가 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0.8%였으며,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63%로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75.8%로 크게 반등했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77.2%, 가장 최근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77.1%를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60.6%였는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46.1%로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8%,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67.0%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선거의 경우에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는 51.6%,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54.5%,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56.8%,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60.2%를 기록했으나, 가장 최근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50.9%에 그쳤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한 이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개최된 선거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쟁을 통한 진영결집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8회 지방선거를 제외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크게 투표율이 상승하여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지방선거 또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당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노무현 정부 이후로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투표율 상승 추세는 정치적 양극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재묵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들의 이념적 양극화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다. 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를 크게 인식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이것은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서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보다 정당의 이념적 격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당들의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유권자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정치참여가 증대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가상준은 제17~19대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정서적 양극화가 투표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클수록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높아졌으며, 정당간 이념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념적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무당파 유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정치적 양극화가 두 정당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무당파의 투표결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참여의 증가는 주목할만한 일이다.

정당 지도부·후보 경선 방식이 정치적 양극화 심화요인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어온 상황이다.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의 차원과 유권자의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정치 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양극화는 나타나지만, 유권자 차원의 이념적 양극화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2010년대 이후 당파적 정렬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정서적 양극화를 통해 정당 수준의 당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당일체감에 기반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과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의 격차로 개념화되는 정서적 양극화는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념적 양극화는 입법교착과 극단적 대립과 같은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의 증가와 같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도 확인된다. 반면, 정서적 양극화는 비정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학계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지적하지만, 제도 차원에서는 각 정당들의 경선확대와 지도부 선출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2000년대의 정당 개혁을 통해 정당 지도부와 후보 선출 절차에서 경선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것은 정당 내부의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당들의 당파적 양극화에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당후보 공천에서 경선의 확대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요구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맞물려 정당의 당파적 양극화의 악순환으로 재현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한국정치의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한 경선과 참여의 확대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들의 제도적 선출절차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의 질



강 우 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다층적으로 지속되는 현상

박정희 정권이 남긴 방대한 유산은 한국 사회 전역에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독재자와 반신반인(半神半人) 영웅으로 추앙받는 양극단에 있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항쟁을 통해 탄핵되고 구속되었된 상황에서도 제20대 대선 유력후보들은 어김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부터 찾았다.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이 현상은 일부 지지자의 퇴행적 신격화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정희를 둘러싼 인식과 평가, 지지와 배척의 간극 속에서도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한국 민주주의에 뚜렷한 함의를 지니는 포괄적 현상임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막연한 회고적 지지나 지속적 선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 현상이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박정희 노스탤지어(Park Chung Hee Nostalgia)'라 명명(命名)한 이유다.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반복된다. 진보정부 4기를 다짐한 자칭 촛불 정부의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를 호명한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성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이른바 진보정부의 후보들 조차도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식 양적 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위한 어떤 성장인지 말하지 않고 여전히 더 많은 성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중요한 유산인 (양적인)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영향력을 잘 나타낸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영향 또한 매우 다층적이다. 이 글에서는 그 영향을 민주주의 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또는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과거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존경과 회고적인 지지를 넘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이러한 광범한 지지는 1987년 민주화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 민주주의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박정희 노스탤지어(nostalgia)'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정부 수립 후 존재했던 정부들의 수행력에 대한 비교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정부 간 비교의 잣대는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사회가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무엇인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경제발전'을 꼽았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 신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14.1%에 지나지 않았다(국민일보, 2008/08/14).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까지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훨씬 능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정부가 '경제성장'에 가장 기여한 정부로 평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2005-2015'를 살펴보자. <표1>은 역대 정부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2005년 조사에서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과 2015년에 미세하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를 유지했다. 반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2005년 39.21%, 2010년 56.62%, 2015년 58.85%를 기록했다. 2005년 조사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14.9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10년/2015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과반수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각각 58.59%, 59.64%).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박정희 정부와 민주정부간 비교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경제 발전	매우 긍정적인 영향	67.34	56.82	56.66	5.49	8.54	11.03	0.77	7.07	8.45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29.77	37,29	36.58	33.72	48.09	47.81	14.16	51.52	51.19
	합	97.11	94.11	93.24	39.21	56.62	58.85	14.93	58.59	59.64
정치 발전	매우 긍정적인 영향	33.53	26.59	28.53	8.0	13.74	15.31	4.05	15.31	17.99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38.92	46.83	45.73	42.77	53.68	50.99	25.72	52.70	52.68
	합	72.45	72.42	74.25	50.77	67.42	66.30	29.77	68.01	70.68

그렇다면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다층적인 현상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글은 정치적 현상으로서 박정희 신드롬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글은 위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많은 국민들이 권위주의적 지도자 박정희를 한국식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평가하고 그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현상" 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경제 성장우선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효율성이 있다고 지지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정치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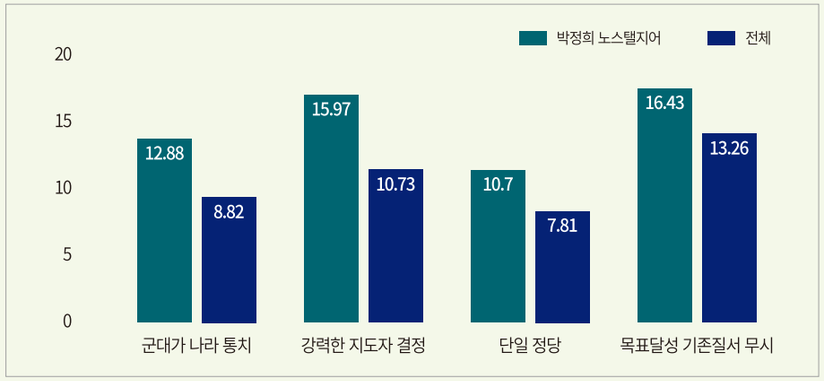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 정치적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그의 딸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일 것이다. 박정희 사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다. 정권교체 직후 치러진 대구 달서 보궐선거(1998년 4월 2일)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녀의 개인적 회고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를 보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 내내 박정희를 소환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선거구호는 “박정희가 세운 경제, 박근혜가 지킨다”였다.

정치입문 이후,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를 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보수정당을 구하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18대 대선(2012년)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정치인 박근혜의 이러한 성공에는 자신이 만들어 온 정치적 자산이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민주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글에서 살펴보는 것은 엄밀한 경험 분석이 아니라 관계와 영향의 수준을 살펴보는 일차적 분석이다. 박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통치방식에 대한 선호(출처.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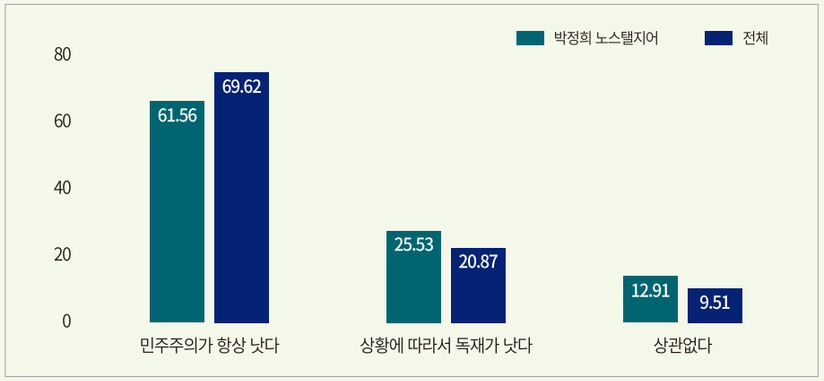


정희 노스탤지어가 민주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의 통치 방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군대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제도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정당 하나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국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에게는 기존의 질서를 무시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기반을 두어 측정했다.

군대 통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8.82%만이 찬성했다. 반면에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가진 집단은 12.88%로 상승했다. 강력한 지도자 결정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10.73%가 찬성한 반면,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가진 집단은 찬성비율이 15.97%로 상승했다. 단일정당 통치는 전체 응답자는 7.81%만 지지를 보냈지만,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가진 집단은 10.7%로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 지도자의 목표 달성 우선주의는 네가지 항목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13.26% 지지를 보낸 반면, 박정희 노스탤지어 보유집단의 경우 16.43%로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체제에 대한 지지 (출처.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2010)



위 그림은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중 ’민주주의가 항상 더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9.62%였다. 하지만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보유한 집단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61.56%로 낮아졌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낫다는 응답은 20.87%에서 25.53%로, 상관없다는 응답은 9.51%에서 12.91%로 증가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정치체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노스탤지어 여전히 지속될 것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세대와 이념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거대한 뿌리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의 중추였던 재벌중심 체제를 엔진으로 하는 총량적인 의미의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선호가 지속될 때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특히, 경제가 정체될 때마다 박정희식 경제 성장모델에 대한 정치적 호명(political interpellation)이 반복될 것이다.

산업화 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기반으로,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에코·제로세대는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박정희 신화를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쟁, 박정희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한국전쟁 세대와 베이붐 세대 상당수는 국가의 발전을 개인의 발전과 동일시했다. 이들 중 박정희 노스탤지어를 가진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부정을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과 동일시한다. 반면에 에코세대나 제로세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지만 저성장속의 취업난으로 인해 성장주의에 강한 선호의식을 가진다.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재생산과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은 미래 과제다. 관련 연구와 자료가 부족해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서 확인되는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위상



이 승 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정희 정부 한국경제의 터닝포인트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심각한 경제적 피해 속에서 출발했다. 약 250만 명의 인명 피해와 국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미국의 경제 원조와 식량·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제 재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는 전쟁 이후의 경제 재건 시기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을 다졌다. 이 시기 농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쌀, 보리, 콩 등이 주요 생산물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화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한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 확대, 농업 생산력 증대를 이루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철강, 화학,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핵심 인프라가 완성되었으며, 포항제철과 같은 중추적 산업 거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적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과학기술 발전 및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 성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은 뒤, 한국 경제는 벤처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2000년대에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

이처럼 한국 경제의 발전은 시대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공화국 시기, '미국 원조 없이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를 육성하고 섬유·화학공업의 자립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산업부흥 5개년 계획(1954), 경제부흥 5개년계획(1956) 등을 수립하였다. 이후 제3 공화국 당시,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6)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기반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술 수준 향상,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였다.

유신 정부 시기에는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학교를 확대하고 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였다. 또한, 창원, 여천, 온산, 옥포 등을 산업기지개발구역(1974)으로 지정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지로 건설하였으며 산업별 정부출연연구소를 주요 산업 거점 지역에 설치하였다. 이후 각 정부에서는 벤처 기업 육성과 IT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혁신 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녹색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해 ICT와 융합산업을 중점 육성했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초광역 경제권과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 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경제 한국 경제의 주요 거점

이러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함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구의 섬유산업,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은 각각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는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전국 섬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값싼 해외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산업 쇠퇴를 겪었고,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산업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미는 1969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전자, 기계,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이 발전하며 한국의 IT산업 허브로 자리 잡았다.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신성장 산업도 구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항은 1968년 설립된 포스코(POSCO)를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메카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철강산업에서 벗어나 수소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다각화를 시도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기술과 수소 저장 기술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전국 대비 총생산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40년간 경제산업 구조를 살펴봤을 때, 대구는 1985년 제조업이 33.0%의 비중에서 2021년 20.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5.4%에서 71.4%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경북은 1994년까지 농림어업이 주도하던 경제구조가 2003년 이후 전기·전자·정밀제조업

과 비금속·금속제품의 제조업이 타 산업부문을 압도하는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대 제조업 부가가치(전기·전자·정밀 제조업과 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의 비중은 2012년 3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또한, 경북의 10년 간격 경제구조를 살펴봤을 때, 1985~1994년의 부가가치 비중은 1위가 농림어업, 2위가 전기·전자·정밀 제조업의 순이였지만 이 시기 연평균성장률 하위 1위 역시 농림어업임을 알 수 있다. 1994~2003년으로 지나오면서 부가가치 비중의 1위는 전기·전자·정밀 제조업, 2위는 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전환되었고, 2012~2021년 부가가치 비중이 큰 산업의 1위는 전기·전자·정밀 제조업이였지만 이 시기 연평균성장률 하위 1위가 전기·전자·정밀 제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섬유, 철강, 전자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했다. 특히, 포스코의 설립과 구미 전자산업단지는 철강과 전자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했다. 1980~1990년대에는 제조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 고용과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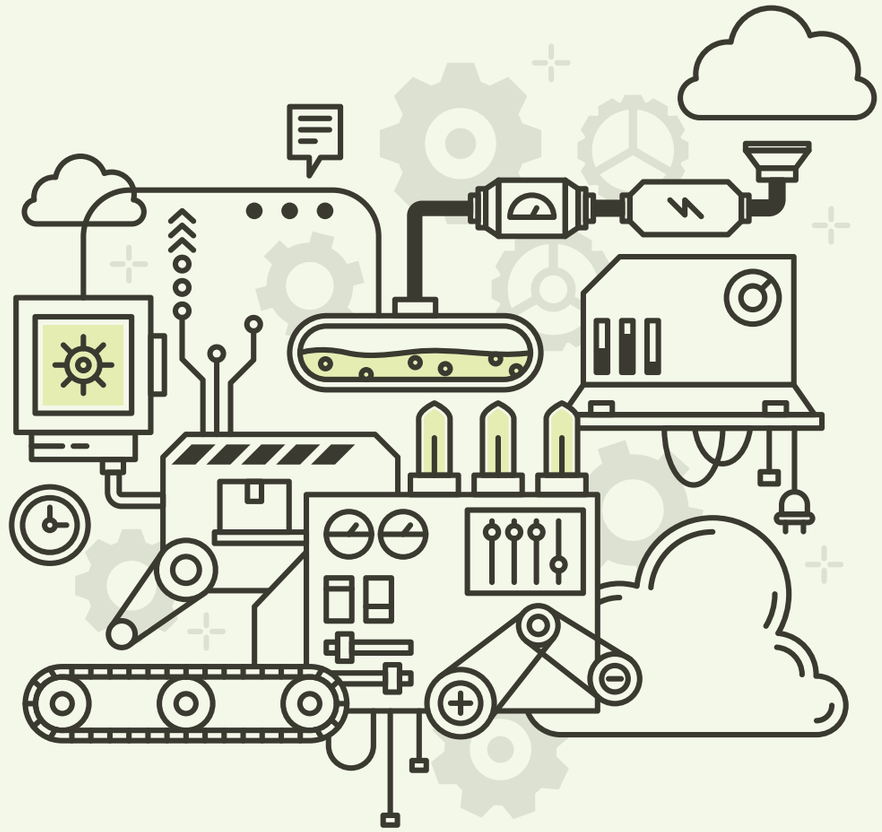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전통적인 제조업인 섬유와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섬유산업의 쇠퇴와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경제 활동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 시장 축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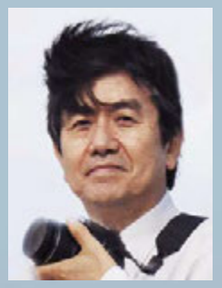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 외에도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 간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경제 기여도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생산성 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서비스업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의 융합 성장이 지역 경제구조 전환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가 출발점인 실크로드 중국대륙 횡단하는 '소통의 길'



박 순 국
실크로드포럼 지도교수
· 전 매일신문 도쿄특파원

사진설명.
실크로드 일 만 리 길 중에서 천산산맥의 화염산 부근. 그 옛날 방울 소리 구슬픈 낙타 대상이 지나갔을 길에 이젠 까만 아스팔트 도로가 뻗어있다. 이 길은 동서양의 숱한 문물이 오고 간 문명교류의 통로였다.

고대 비단무역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를 이어준 실크로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이 교역로는 실로 웅대하고 복잡다기한 길이다. 실크로드는 이제 지구촌 공생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조명해야 한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신과 함께 대륙의 소통길 실크로드도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실크로드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경주박물관에는 로마에서 만들어져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공예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로만 글라스, 보검 등은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것들이며, 또 신라인들은 서역인을 데려다 왕릉들을 지키게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크로드의 출발점은 경주이다.

길 위에 길을 연 실크로드

횃불지에 실크로드 동쪽 끝 한반도 경주에서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튀르퀴에 이스탄불까지의 전 여행 과정을 소개한다. 필자는 중국대륙을 횡단했다. 그곳은 아직 뜨거운 모래의 땅이고, 그 속에는 부침한 수많은 문명과 또 그 문명을 일군 주인공들이 미라로 잠들어 있다. 돈황을 지나면 거대한 타클라칸 사막이 나타난다. 풀 한 포기 없는 저주 받은 땅이고, 조물주가 실패한 땅이다. 구도자만이 모진 고행을 자초하는 뜨거운 모래벌이다.

흙바람이 불면 버스기사는 속도를 줄이고 헤드라이트를 켠다. 방울 소리 구슬픈 낙타 대상이 지나갔을 길에 이젠 까만 아스팔트가 하늘 맞닿은 곳까지 뻗어있다. 지평선 위로 종일 이글거리던 해가 붉게 부풀리더니 온 사막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서서히 떨어진다. 땅거미가 내려 상인과 낙타가 지친 몸을 뉘였을 오아시스엔, 새로운 유정, 철광, 탄광이 발견되어 신도시가 쭉쭉 뻗어있다.

서안 진시황 병마용갱

중국에서의 실크로드 루트는 외길이 아니고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다. 인천서 출발한 여객기는 서안국제공항에 내렸다. 정식명칭은 '시안셴양(西安 咸陽)국제공항'. 서안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진시황 병마용갱을 방문한다.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3개의 갱 중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제1호 갱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우선 그 규모에 압도된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도열해 있는 6천 여기의 병사들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진시황은 분서갱유를 일으켰고 과도한 토목공사를 시행해 민생피폐의 폭정을 거듭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천하를 통일하여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어 중국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진시황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최강국으로 가기 위한 내부결속의 노림일 수도 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공로는 다민족국가들에 의한 분열의 역사를 단절하여 체제를 안정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존재하는 다민족국가이다. 진시황 병마용갱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관광객들도 많지만 인파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다. 그들 중에는 한족 외에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있을 것이다.



진시황 병마용갱 바닥에 도열해 있는 진나라 병사들이 2천년의 세월을 말해준다.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병마용에 원래는 채색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로 또는 발굴 이후 탈색되었다.

2천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도열해 있는 수천 개의 병마용들은 그들에게 '너희는 모두가 하나의 중화민족이므로 다른 군소리 말고 힘을 합치라'는 무언의 교시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대륙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연결된 실크로드. 그 멀고 먼 길 주변에는 오랜 세월을 뿌리내리며 살고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다. 지역마다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차이가 있다. 서쪽 끝에서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반항에 대해 이를 잠재우려는 바람도 강해 보인다.

현장법사
대안탑 향로에 향 피우고

오늘날 서안의 자은사 대안탑 앞에는 광장이 있고 현장법사의 동상이 시가지를 향해 서있다. 이곳은 당시 방대한 불경들을 한자로 번역했던 장소라고 한다. 법당 앞에 놓인 대형 향로에는 한자로 불경과 소원이 적혀있는 크고 긴 향들이 꽂혀있다. 왕복 17년 동안 현장은 목숨 걸고 오로지 한 가지, 구법의 길을 무사히 다녀왔다. 그가 가져온 소중한 경전과 불상을 보관하기 위해 탑은 652년 세워졌고 이 향불도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 신라승 혜초도 사막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으로 먼 길 떠날 마음의 채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 옛날 인도로 떠나는 구법승들이 대안탑 앞에서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향을 올렸듯이 스님도 이곳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혜초는 왕오천축국전을 남겼고 대안탑의 향불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부근 매점에서 향을 샀다. 실크로드 여행의 출발점에 서있는 모든 일행들이 무사히 먼 길 다녀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향을 피웠다.

하서회랑 지나
돈황 막고굴

서안을 떠나면 황하와 난주시를 만난다. 시뻘건 황톳물이 흐르고 형형색색의 붉고 누런 산뿐이었다. 산들은 겉흙이 굳어져서 돌과 같았고, 비가 오지 않으니 깎이지 않아 날카롭고 가팔랐다. 거기서부터는 이른바 하서회랑인데, 돈황까지 이어진다. 시안을 도읍지로 정한 한제국이 흉노와 쟁패를 벌인 곳이 바로 하서회랑을 거쳐서 돈황에 이르는 땅이었다. 이곳을 넘어서면 땅은 더더욱 거칠어지고, 작열하는 태양과 낙타풀 만이 듬성듬성한 사막이 펼쳐진다.

중국의 힘이 넘쳐날 때는 돈황 너머의 서역까지 진출하였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포기하고 움추려 들었다. 비단길은 이처럼 동과 서의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고, 동·서의 문물이 넘나드는 통로였다. 돈황 막고굴을 개굴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란이 끊이지 않던 5호16국 시기이었다. 특히 불교를 숭상한 북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석굴 조성은 완성되였다. 이런 이유로 돈황의 초기 석굴에는 북위시대 것이 많다. 전란으로 백성의 삶이 불안하였던 상황이 오히려 불교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불승이 이 길을 따라서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나갔다. 그 중 대표적인 스님인 법현은 399년에 당시 63세라는 고령에도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고, 험준한 파밀고원을 넘어 인도에 가서 불전을 구해왔다. 법현이 남긴 글은 고난의 실크로드를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막막하고, 가야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죽은 사람의 해골만이 길을 가르키는 표지가 되는 구나.' 이처럼 험한 길이다 보니 돈황을 떠나 서역으로 가는 사람은 출발점이기도 한 돈황에서 자신의 안녕을 부처님 앞에서 빌었을 것이다.

서역으로
들어서며

높은 산맥 사이로 좁은 사막이 이어진다. 그곳을 따라 무위, 장액, 주천, 돈황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황 서쪽은 거대한 타클라마칸사막이 있어 인간의 범접을 막는다. 차창 풍경은 척박한 사막 그대로다. 중원 내륙은 깊이 들어갈수록 황량했다.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도 산맥은 끝나지 않았고 사막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괴한 무채색의 산과 구릉들 사이의 회색 도로에는 간혹 스치는 트럭의 거친 숨소리뿐이다.

천산산맥의 화염산 부근을 보면 산에도 뼈가 있다. 풀 한 포기 없이 해골만 남은 땅, 온통 화염 타오르는 모양으로 병풍이 쳐져 있다. 그 천산산맥 먼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반짝이고, 그 녹은 물이 지하로 흘러와 지상으로 솟은 것이 오아시스이다. 미루나무가 높이 솟은 오아시스 촌락을 통과하다 보면 옥수수밭과 목화밭이 펼쳐진다.

천산산맥의 눈 녹은 물을 활용하는 물의 도시 투루판과 쿠차, 키질석굴이 있는 악수를 거쳐 중국대륙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역사도시 카슈카르로 향하는 여정은 이어진다. 현대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을 지닌 이 길들은 그래도 모두가 천년 세월을 두고 수많은 문물교류를 통해 다양한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혼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독특한 문화와 예술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특히 신장지역은 웅대한 대자연의 풍경과 동서양 교류의 중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역은 수많은 역사의 부침 속에 생성된 위대한 문명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천년 역사 간직한 석굴들

투루판의 아침도 어김없이 건조했다. 위구르 노래가 흐르는 목책 입구에서 버스를 내린 우리는 흙무덤 같은 옛 고창국의 고성(古城)으로 당나귀를 타고 달렸다. 덜커덩거리는 흙길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쓰며 짐칸에 실려 갔다. 왕궁엔 630년 현장법사가 국씨 왕의 간청으로 한 달간 머물며 설법했다는 장방형의 돔 사원과 불상을 앉혔던 우아한 감실(監室)을 복원하고 있다.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한 집'이란 뜻을 가진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손오공의 활약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화염산 기슭에 몽환(夢幻)처럼 숨어 있었다. 막고굴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석굴을 파 불상을 안치하고 벽화를 그려 안녕을 기원하거나 수도하던 사원이다. 유럽의 탐험가들이 제집 들락거리듯이 몰려와 석굴 안에 있는 벽화들을 뜯어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입구 광장에서 절벽을 끼고 초생달 모양으로 뚫린 총 57개의 석굴 중 개방된 몇 곳에는 거의 그들에게 도둑맞아 훼손되거나 회교도들에 의해 파괴된 석불과 벽화들만 남아 있었다.

투루판을 무려 800킬로나 달려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인의 기개를 펼치던 쿠처에 닿으면 키질석굴이 있다. 3세기 말부터 약 500년에 걸쳐 조성되었고, 현존 중국의 불교 석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키질석굴도 열강들에게 당한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석굴 입구에서는 현장, 법현과 함께 중국 3대 역경승으로 추앙받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의 청동좌상이 객을 맞이한다. 지난 1994년, 탄생 165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고 한다. 푸르다 못해 검은 몸으로 앉아 내리꽂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찔한다. 키질석굴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다.

인도귀족을 아버지로, 쿠처국 공주를 어머니로 둔 그는 범어로 된 초기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에 매진했었다. 그가 번역한 불경이 반야심경, 법화경, 금강경 등 35부 294책에 이른다고 한다. 죽기 직전 구마라즙은 "내가 번역한 불경에 틀린 것이 없다면 나를 화장해도 혀는 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신의 완역을 증명하라던 예언의 실현이듯, 다비 후에도 혀는 타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청동의 검은



반야심경을 비롯 많은 불경을 번역한 명승 구마라습의 청동좌상이 키질석굴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다.

빛이 발하는 윤기는 그의 철저한 언어 감각의 징표 같다.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그의 역어라니, 모든 불자들은 수시로 그의 숨결을 마시는 셈이다.

위구르족의 자존심 향비묘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 카슈카르에서 동북쪽으로 5㎞ 정도 떨어진 곳에 향비묘(香妃墓)라 불리는 유적지에 들렀다. 필수 관광 포인트가 될 정도로 유명하지만 정치적인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건물의 내부에 향비라고 불리는 위구르 여인의 묘가 있다. 이곳은 1640년경 당시의 지역 이슬람 최고실력자 아바 호자가 지은 그들 가문의 묘지인데 5대에 걸친 가족들이 묻혀있다고 한다.

크기와 화려함은 당시 호자 가문의 실력과 위구르족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것 같다. 향비묘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항하려는 위구르인들이 상징적인 장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 향비라는 여성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



1640년경 위구르지역 이슬람 최고실력자 아바 호자가 지은 가문의 묘지이자 향비묘로 불리는 건물.
아름다운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청의 황제 건륭제가 어느날 밤, 서역의 한 미인을 꿈속에서 만났다고 한다. 황제는 수소문하여 그녀를 찾으니 카슈카르에 있는 호자 집안의 딸이었다. 황제는 황궁으로 그녀를 데려가 향비라 호칭을 주며 구애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시퍼런 비수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거절했고 결국 비운의 생애를 마쳤다.

이 스토리가 적어도 위구르인들에게는 청의 정복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향비는 민족적으로 저항한 위대한 여성이 됐다. 이처럼 향비이야기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무슬림 위구르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 중앙 정부의 강압적 통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해낸 전설적인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향비도 그 이미지를 오버랩시킨 것이다. 향비는 청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향비는 위구르족의 자존심이 되었고,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설화를 통해 그들의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크로드의 경제·문화적 잠재력

멀고 먼 여정동안 차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 가운데에서도 거대한 풍력발전 단지, 끝도 보이지 않는 송전탑의 행렬,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유전의 붉은 화염을 보며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옛날 비단상인들의 낙타행렬이 이어졌을 그 길에는 수많은 대형트

럭들이 가득가득 물건을 싣고 숨가쁘게 달려간다. 중국에는 서전동송(西電東送) 즉 서부의 전기를 동부에 보낸다는 말이 가끔 언론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위구르 지역은 중국 석유 매장량의 전체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엄청난 광물자원과 사막지역 특유의 지하자원을 매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텅스텐, 희토류, 치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쿠얼러 지역을 지나면 도로변에 한자로 쓰여진 큰 입간판이 보인다. '모래바다 변하여 기름 바다 됨은 천년의 꿈, 큰 사막 변하여 길 뚫림은 오늘의 기적' 실크로드가 지나는 황무지를 자원의 보고로 개발한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중국은 실크로드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를 겨냥한 국제물류센터도 건설 중이라고 한다. '21세기 경제 실크로드의 선점'이라는 그들의 야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민족간의 인종 갈등, 고갈되는 석유 등 지하자원, 여성인권, 이슬람 등 종교문제, 기후문제와 사막화를 비롯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 물류망을 정비하여 '경제 신실크로드'를 복원하고 있다. 대국굴기(大國崛起)에서 보듯이 당나라에서 로마제국,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비단과 화약 등을 팔았던 그때의 영화를 되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유입의 길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동서의 문물 못지않게 여러 종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 즉 구법자와 선교사의 길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흘러가고, 만나고, 충돌한 현장이기도 하였다. 둔황, 베제크릭, 키질의 천불동은 요즘말로 구법자나 구도자들의 정진 문화 센터가 아니었던가. 중국에 들어온 거의 모든 종교가 이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크로드는 1세기 불교부터 각종 종교가 밀려 들어온 신앙의 물꼬였다. 이슬람교는 8세기 전반 카슈가르를 비롯한 신장 서부지역부터 전파되었고, 10세기에 출현한 카라한 왕조가 이슬람교를 수용함에 따라 13세기 초에는 투루판까지 전파되었고,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신장지역에 전파되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비롯한 이슬람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네스토리우스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의 한 파인 경교(景敎)도 실크로드를 따라 동점해 왔다. 시리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소그디아나로 전파된 이 종교는, 650년경에는 카슈가르에까지 이르게 된다. 지금 서안 비림박물관에 있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는 7세기의 시리아 및 페르시아 선교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비석이다.

천산 천지의 신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를 경유하기로 했다. 몽골어로 '아름다운 초원'이란 뜻을 가진 우루무치는 이름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이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시내에서 천산 제2의 고봉 해발 5,445미터, 보그다이(Bogdai), 즉 박격달봉(博格達峰)이 보인다. 그 설산 깊은 곳에는 신비의 산중호수가 숨어있다. 맑은 물을 가득 담고 고요히 펼쳐져 있는 호수로 천지(天池)라 불린다.

천산의 해발 5000미터급 고봉들에 둘러싸인 신비의 산중호수 천산천지. 멀리 만년설에 덮인 박격달봉이 보인다.



천산천지 대형주차장에 도착하면 2명씩 타는 로프웨이를 타고 천지 바로 아래 주차장까지 간다. 작은 언덕을 오르니 푸른 천지 뒤로 천산의 만년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시원하고 장쾌하다. 가운데 설산을 중심으로 겹겹이 펼쳐지는 능선이 비취색상의 수면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천지는 중국 사람들도 신성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신성함이 깃든 민족의 성지로 추앙한다면 우루무치 사람들은 이 천연호수를 그렇게 여긴다.

이제 다른 문명, 또 다른 기시감, 또 다른 신비를 찾아서 내년 봄에도 돌궐족처럼 더욱 서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은 진정 21세기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연원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이다.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정치의 문제다





김 교 영
매일신문 논설위원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면 보통의 삶은 궁핍했다. 너 나 없이 힘겨웠다. 그래도 그 때는 가난한 집의 자식도 머리띠 싸매고 공부하면 출세 길이 열렸다. 피땀 흘려 일해 돈을 벌기도 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던 시대에는 가능했던 얘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세상은 달라졌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편입됐다. 사회 모든 분야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편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졌다. 빛이 있는 반면 그늘은 짙어졌다. 그 그늘은 다름 아닌 사회 양극화(社會 兩極化·social polarization)의 심화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빈부 격차의 골은 깊어졌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

사회 양극화는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뜻한다. 양극화는 급변한 경제 환경, 취약한 산업고용 구조, 정책적 대응의 미흡으로 인해 생겨난 개념이다. 세계화, 중국과 제3세계 국가의 급부상, 정보통신기술(IT) 및 금융산업의 발달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있었다. 산업고용 감소에 따라 자영업은 비대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았다.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소득 및 부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소득에 따른 교육의 격차 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저 출생 시대, 고령사회를 맞아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상위 20%' 임금이 '하위 20%'의 4.5배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임금 격차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6월 기준)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천799원, 비정규직은 1만7천586원이었다. 즉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8천214원인데,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44.1% 수준인 1만6천843원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71% 수준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의 격차는 더 커졌다. 상위 20%의 월 평균 임금은 856만4천원, 하위 20%는 190만2천원이었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4.5배를 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과도한 입시·취업 경쟁의 원인이다. 너도 나도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 하고, 임금과 복지가 월등히 좋은 대기업, 공기업, 은행에 취직하려 한다. 지방의 대학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인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늦은 결혼, 낮은 출생률은 모두 여기서 파생된 문제다.

소득 불평등은 출산율에 악영향

기성세대는 결혼을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청년들을 '이기적인 세대'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출생률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 현 윤석열 정부까지 3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말이다.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필자와 함께 활동하는 한 기업인은 식사 자리에서 출생률 저하를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탓이라고 지적했다. 비혼 독신을 미화하니, 청

고층아파트와 주택이 대조를 이루는 대구시가지.
IMF 외환위기 이후 부(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2, 3명씩 자식을 낳았다고 했다.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받고, 아르바이트하며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출생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10월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이는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생률도 떨어졌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소득 불평등이 과도한 칠레·코스타리카·멕시코·미국 등을 제외하고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분석 기간 중 우리나라의 출생률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이는 OECD 국가에서도 대체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990~2020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출생률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니계수는 2020년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다만 30년간 지니계수가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이 교수는 특히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이 큰 선진국일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는 중·저소득층의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저출생 극복은 소득 재분배 정책과 연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념·정서적 양극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쾌거(快擧)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역사 왜곡 작품', '빨갱이 작가'란 거친 폄훼(貶毁)까지 쏟아낸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규탄했다. 이들은 "픽션과 논픽션을 가리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새겨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편파·편향된 역사왜곡의 손을 들어준 노벨상의 권위를 실추시킨 스웨덴 한림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 단체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선정적(煽情的)이라며 도서관 비치를 반대했다. 형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내용을 다룬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재혼한 삼촌이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역시 도서관에서 퇴출돼야 한다. 근친상간·불륜·동성애·살인이 곳곳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다.

'문학'을 '이념'으로 읽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김훈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한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야권 강성 지지층의 뭇매를 맞았다. 2001년에는 보수매체에 실린 이문열 작가의 칼럼을 비난한 반대 진영이 그의 책을 불태운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 해도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과 진리를 대비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口舌)에 올랐다. 이 와중에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의 '문 씨 옹호 발언'은 황당하고 놀랍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나 할까.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음주운전은 살인'이라 했는데, 팬덤(fandom)의 생각은 딴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 운전까지 했을까" "그래도 전직 대통령 딸인데 경차 타고 다니시는 것 보니 제대로 된 분은 맞는데, 너무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 딸인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다" 등의 댓글이 등장했다.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병리(社會病理)는 이념·정서적 양극화이다. 두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정서적 양극화는 '확증 편향'(確證偏向)과 '우리 편 편향'의 복합 작용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



대구 도심에 빈 점포들이 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매일신문 제공)

한다. 또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핍박한다. 이런 편향들이 사람들의 전두엽에 똬리를 틀면,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의 일종이다. 또한 양극화의 최고 단계다. 정치 양극화는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로 나눌 수 있다. 이념적 양극화는 진영 간 정책 차이가 뚜렷하고 유권자들의 선호 정당이 명확해, 정치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대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 정책 및 이념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과 이념의 대결보다는 내 편, 네 편 갈라서 상대편에 무조건 반감을 갖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논리와 이성보다 감성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다.

지지 정당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결혼을 꺼리는 것(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58%)은 물론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는다.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의 생활과 내면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난해 5월 한국리서치가 한국사회 갈등 수준을 조사했더니,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4%였다. 그 다음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92%) ▷부유층과 서민

층(88%) ▷기업가와 노동자(88%) ▷정규직과 비정규직(84%)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84%) ▷수도권과 지방(80%) ▷영남과 호남(73%) ▷남성과 여성(71%) 등의 순이었다.

22대 총선 직후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示唆點)이 많다. 보좌진은 21대 국회 운영 성과를 5.1점(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들이 낙제점을 준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양극화(57.9%)였다. 양극화 탓에 여야 간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는 갈등·혐오·차별을 선동한다. 정치 양극화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낳고, 중요한 민생 정책을 외면한다. 갈등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갈등의 정치화'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민생은 파탄난다.

정서적 양극화 해소는 어렵다. 진영·이념·젠더·세대·계층 등 다양한 갈등 요소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그렇다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해결의 첫 단추는 서로를 향한 올바른 이해다. 상대 정당과 진영에 대한 왜곡·편향된 정보를 바로잡고, 불신을 줄여가야 한다. 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든, 국회에 자율정화기구를 만들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UN이 정한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매일신문 제공)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를 강화한다. 따라서 극렬 지지층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당원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정상화'는 아득히 멀다.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언론도 우리 편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또 온라인 기반의 속보 경쟁, 조회 수 올리기 등의 급변한 언론 환경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언론은 국민들이 상대 진영 및 다른 계층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론장(公論場) 역할을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는 정치의 문제

능력주의는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다. 하지만 그 역할은 여기까지다. 능력주의는 개인주의와 접목되고, 시장주의 안에서 극단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세습 자본주의'를 낳게 됐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의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 세습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불평등이 커지는 큰 요인은 정치다. 기득권 엘리트 정당으로 변해가는 우리나라 양대 정당의 책임이 크다. 보수-진보, 좌파-우파를 막론하고 상위 계층의 이해관계에 쏠려 있다. 양대 정당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인색하다. 지난 수십 년간 두 세력이 한국의 정치를 지배했다. 1970년대식 산업화 세력과 80년대식 민주화 세력이다. 이들은 핵심 권력과 자원을 나눠 갖고 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우리 사회를 70·80년대에 묶어 두려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버렸다. 새로운 정권은 늘 '개혁'과 '적폐청산'을 내세운다. 사실은 '정치 보복'이었다. 그래서 양대 정당은 정권을 차지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통합은 없고 진영논리가 판을 친다. 내 편만 있고, 국민은 없다. 정치를 혁신해야 미래가 있다.

"모든 시대 모든 풍토에서 다양한 사회의 엘리트들은 불평등을 '자연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저자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냉철한 통찰이다.

인륜을 거스르는 험악한 시대 사람도리를 실천한 한훤당을 떠올린다



송 의 호
언론중재위원
전 중앙일보·JTBC 대구총국장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동서원.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흐른다.(사진 백종하)



대구 도동서원(道東書院)은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달성군 구지면 대니산 기슭에 들어서 있다. 이 서원의 강당은 중정당(中正堂)이다. 우람하다. 중정당은 전면에 굵은 민흘림기둥 여섯 개가 눈길을 끈다. 이들 기둥은 윗부분에 흰 종이띠를 두르고 있다. 도동서원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른바 '상지(上紙)'다. 서원 아래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이곳이 존경을 표해야 할 곳임을 알게 하는 표식이다. 국내에는 서원 650여 곳이 있다. 이 상지를 두른 곳은 도동서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흰 띠 도동서원에 모셔진 인물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바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선생이다. 한 번쯤 이름을 들었을 유학자다. 선생의 20대손인 김백용 종손의 설명을 들었다.

한훤당은 조선시대 5현(五賢)의 한 사람이다. 한훤당 김굉필을 비롯해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등 유학자 다섯 명(시대순)을 가리킨다. '동방오현'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모두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배향됐다. 여기서 한훤당은 이들 오현 중 다시 첫머리에 꼽히는 '수현(首賢)'이라는 것이다. 종손은 "흰 띠는 수현의 표시"라고 말했다. 도동서원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없다. 말을 타고 서원 인근을 지나다가 이 상지를 보면 말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지에 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고 덧붙였다. 종손은 미묘한 논란도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생전에 점필재 김종직(1431~1492) 문하에서 함께 공부한 일두 정여창(1450~1504)은 한훤당보다 나이가 4년 위다.

도동서원 중정당은 상지와 함께 받침돌인 기단석도 주목을 받는다. 모양과 색상, 재질이 서로 다른 돌들이 4각형, 6각형, 8각형 등으로 다듬어져 위아래와 좌우로 빈틈없이 맞물려 있다. 전국의 사림이 한훤당을 추모하기 위해 저마다 돌을 골라 보낸 것이라고 한다. 정성이 절로 느껴진다. 한훤당은 어떤 길을 걸었기에 그런 추앙을 받는 것일까.



도동서원 중정당을 떠받치는 기둥 위쪽에 감긴 흰 종이 띠, 상지. (사진 백종하)

한훤당의 생애 기록은 크게 연보와 행장(行狀)에 남아 있다. 행장은 두 편이 전한다. 문인 이적이 먼저 썼고 1572년 기대승이 다시 썼다.

한훤당이 태어난 곳은 서울 정릉동이다. 본관은 황해도 서흥. 한훤당의 증조부는 수령 등을 지내다가 부인의 고향인 경상도 현풍현으로 이주했다. 도동서원이 있는 대구 달성군이다. 조부는 또 한양에도 연고를 둬 한훤당은 서울에서 출생하게 된다.

스승 김종직 『소학』을 건네다

행장에는 어렸을 때 김굉필이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적혀 있다. 처음에는 행동이 거칠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분발해 글을 배웠다. 19세에 합천군 야로현 순천 박씨 집에 장가든다. 그는 처가 옆 개울 건너 작은 바위 아래 서재를 마련해 한훤당(寒暄堂)이라 이름 붙였다. 김굉필은 이후 이곳에서 글을 읽고 가야산을 왕래했다.

21세. 한훤당은 그해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함양군수로 있던 점필재 김종직을 찾아가 제자가 된 것이다. 점필재는 기뻐하며 『소학(小學)』을 건넨 뒤 훗날의 대성을 기대했다. 한훤당도 스승의 당부를 명심하고 그때부터 소학 공부에 몰입한다.

소학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주자(朱子)의 제자 유자징이 편찬했다. 주자는 여덟 살이 되면 소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소학은 물 뿌리고 쓸며[灑掃] 남을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進退] 등 몸가짐과 예절로 시작한다. 성격 형성에 필요한 수신서다. 그러나 뒷부분 '가언(嘉言)' '선행(善行)' 등에는 사서오경과 선현의 행적을 적은 문집과 역사서 등을 인용한 글이 나온다. 『논어』『맹자』『사기』『효경』『춘추좌전』『회남자』 등 출처가 다양하고 수준이 높다. 소학만 떼면 웬만한 명문(名文)을 섭렵할 수 있는 구조다. 주자는 소학은 집 지을 때 터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훤당은 평소 첫닭이 울면 머리를 빗고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사당에 절하고 부모를 문안했다. 소학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 그는 27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한시기 문장가(文章家) 공부에 힘쓰는데 소학을 읽다가 곧 깨닫고는 이렇게 시를 지었다.

글을 읽어도 천기(天機)를 알지 못했더니/ 소학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자식 도리를 다하련다/ 어찌 구구히 가볍고 따스한 가죽옷과 살찐 말을 부러워하리오

한훤당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창한 공부에 앞서 어제 저지른 잘못을 돌이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상의 공부를 중시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학동자(小學童子)'로 자처했다. 사람들이 혹 나라 일을 물으면 "소학을 배우는 동자가 어찌 큰 대의(大義)를 알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나이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었다고 한다.

한훤당이 소학에 전념해 수신 위주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튼튼히 한 것은 후일 대성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는 소학이 학문의 기초인 동시에 인간 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됨을 역설했다. 이후 제자인 조광조를 비롯해 김안국·이황 등 도학의 실천을 강조한 사림파도 소학을 강조하게 됐다. 한훤당은 이렇게 소학을 유치한 아동의 공부 과정으로만 여기던 학풍을 바꿔 놓았다.

한훤당을 제향하는 서원은 본래 1568년(선조 1) 대구 비슬산에 쌍계서원(雙溪書院)으로 건립됐다. 건물은 임진왜란 시기 무너졌다. 서원은 1604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보노(甫老)'로 이름을 바꿔 중건됐고 1610년 다시 '도동'으로 사액됐다. 도동(道東)이란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이다. 한강 정구는 도동서원 중건을 사실상 주도했다. 한강은 한훤당의 외증손으로 당시 영남학파를 이끌고 있었다.

유배된 김굉필 찾아간 17세 조광조

한훤당은 생원시를 거쳐 성균관에 입학한다. 그는 온건했지만 사림파의 일원으로 현실에 대한 개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 33세 한훤당은 당시 이조참판에 오른 스승인 56세 김종직의 처세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겨울에는 갖옷 입고 여름에는 찬물 마시는데 도(道)가 있는 것이다/ 날이 개면 다니고 비가 오면 그친다고 어찌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랴/ 난초가 시속 따라 끝내 변한다고 하면/ 소가 밭을 갈고 말은 타는 것이라 해도 누가 믿을 것인가

스승 점필재가 요직에 있으면서도 당시 정국의 혼잡함을 개혁하려는 건의 하나 하지 않음을 풍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점필재는 사림파의 영수답게 제자의 충언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훤당은 점필재와 소원해졌다.

이후 한훤당에게도 관직의 길이 열린다.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의 천거로 그는 41세에 종9품 미관말직 남부 참봉을 시작으로 전생서 참봉, 군자감 주부 등에 제수되고 사헌부 감찰을 거쳐 44세엔 형조좌랑에 오른다. 그러나 불운이 엄습한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45세 한훤당은 점필재의 문도로 붕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곤장 80대를 맞고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됐다. 그러나 전화위복이 되는 걸까. 한훤당은 거기서 정암 조광조(1482~1519)를 만나 학문을 전한다. 17세 청소년 정암은 찰방으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갔다가 인근에 유배된 한훤당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다.

정암은 한훤당으로부터 학문하는 근본 방법을 듣는다. 우리 유학사의 정맥을 잇는 만남이다. 2년 뒤 한훤당은 전라도 순천으로 이배된다. 운명은 또 한 번 요동친다. 1504년(연산군 10) 다시 화가 닥쳤다. 마지막이었다. 한훤당의 목숨을 앗아간 갑자사화다. 기대승은 행장에 그 최후를 이렇게 적고 있다.

"…선생이 사형의 명령을 받고는 목욕하고 관대를 바로 하고 나아가면서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천천히 수염을 입에 물면서 말하기를 '신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이것마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장으로 걸어갔다…."

한훤당은 순천 유배지에서 무오년 당인(黨人)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목이 베이고 저자거리에 효수됐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한다.

중정당 뒤 가장 높은 위치인 사당에 들렀다. 참배했다. 위패엔 흰 바탕에 '증우의정 문경공한훤당김선생'이라 적혀 있었다. 선생은 사후 우의정으로 추증됐고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겉은 엄격하고 속은 따뜻하다

한훤당은 일생 '치인(治人)'보다 '수기(修己)'에 주력했다. 그 덕분에 20여 명에 이르는 그의 문도들은 두 차례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의 문인들은 후일 개혁정치를 주도하는 사림파의 주축을 형성한다.

김굉필은 자녀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4남 5녀를 뒀다. 기대승이 쓴 행장에 관련 이야기가 전한다. 한훤당은 여러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한다. "너희들은 마음으로 공경하라. 또 게으른 생각을 가지지 말며, 남이 혹시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절대로 서로 따지지 말라."



도동서원 뒷산에 모셔진 한훤당 김굉필의 묘소. (사진 백종하)

또 옛말을 인용해 훈계를 덧붙인다. "남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은 피를 입에 물고 남에게 뿜으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으니 너희들은 이 말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기대승의 행장에는 한훤당과 일두 정여창의 관계도 언급돼 있다.

"…정 선생 일두와는 뜻이 같고 도(道)가 합일해 특별히 서로 잘 지냈다. 만날 적마다 함께 도의를 연마하고 고금의 일을 토론하다가 밤을 새우기까지 했다. 선생이 학문하는 것이 정밀하고 실천이 오래되었음에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인 두 사람은 서로 마음과 학문이 통하는 지기(知己)였다.



임금이 도동서원에 내린 『춘추』와 경위를 기록한 문서.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윤사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의리가 핵심인 성리학적 실천유학을 도학(道學)이라 부른다"며 "한훤당은 일찍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몸소 모범을 보이려 힘쓴 학자"라고 평가했다.

한훤당은 학문적으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우리 유학사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특히 정여창과 함께 사장(詞章)보다 경학(敬學)을 강조했다. 그래서 퇴계는 "오로지 위기(爲己)를 일삼아 진실한 실천으로 학문을 닦은 사람은 오직 한훤당 선생뿐이었다. 이에 정암 선생이 난세를 당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한훤당 선생에게 배웠다. 정암 선생이 뒷날 도(道)에 나아간 정성과 뜻의 높음이 저와 같은 것은 실로 그 발단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서원을 나와 왼쪽 길로 800m 떨어진 한훤당 묘소를 찾았다. 서원 뒤 소나무가 울창한 대니산(戴尼山) 중턱이다. 산 이름은 도동서원이 들어선 뒤 공자의 자(字) '중니(仲尼)'에서 따 '공자를 받드는 산'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봉분 옆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배롱나무가 서 있다. 봉분은 큰 편이었다. 왕릉과 일반 분묘의 중간쯤이다.

한훤당(寒暄堂)이라는 호의 유래를 물었다. 한자 훤(暄)은 '온난하다'는 뜻이 있다. 종손은 "한훤이란 겉은 냉철하고 엄격하지만 속은 따뜻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도동서원 앞 한강이 서원 중건 뒤 심었다는 은행나무를 뒤로 하고 종택으로 향했다. 낙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9㎞쯤 떨어진 현풍 못골이다. 한훤당고택에는 '소학세가(小學世家)'란 편액이 걸려 있다. 소학의 가르침이 내려오는 집이다. 종손은 그 정신을 살리고자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고택 안에 인성교육과 토론 등 용도의 한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또 소학을 주제로 시회(詩會)를 열기도 한다.

잊을 만하면 인륜을 거스르는 험악한 뉴스가 들려오는 시대다. 도동서원에 배향된 한훤당은 다름 아닌 사람의 도리 실천이란 횃불을 들었던 인물임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남평문씨 인흥세거지의 ‘三相미학’ (상)



이 몽 일
경북환경연수원 객원교수 · 풍수학박사

비슬산(태조산)~삼필봉(중조산)~천수봉(주산)으로 이어지는 남평문씨 인흥세거지(원 안)의 생동美 넘치는 남북방향 내맥[내룡]축과,
천수봉~凹형 안산~함박산(朝山)으로 이어지는 상생美 조응관계의 동서방향 안대(案對)축.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공간적, 장소적 동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과 땅 사이의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 기차역이나 공원처럼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공간(space)이 있는가 하면, 거의 매일 접하면서 애정을 두고 있는 집과 단골 가게, 산과 개울 같은 장소(place)도 있다. 특정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 그곳에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가 누적될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우리는 현재 도시인구율 92%라는 초유의 도시문화시대를 맞이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문화 환경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은 자아정체성 상실을 겪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며 역사성과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삶터 경관(景觀)의 장소정체성 상실은 사람들에게 마음 둘 곳을 없게 만들고 있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서 단연 톱을 기록하고 있다. 21세기 도시문화시대의 對인간성, 對장소성 스트레스[피로]가 낳은 우리 사회의 비극적 병리현상들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본리1리, 속칭 인흥(仁興)마을의 남평문씨 세거지는 그런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

어진 별외(別外)의 세계다. 2백 년 역사도 채 안 되는 씨족세거지이지만 5~6백 년 된 전통마을에 못지않은 공고한 인문적 정체성과 장소혼(魂)을 지니고 있다. 외부 사람들은 주로 여름에 피는 능소화나 아름다운 자태의 한옥과 담장을 보기 위해 인흥세거지를 찾는다. 그러나 아름다움, 즉 미학은 반드시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철학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평문씨 인흥세거지에는 풍수뿐만 아니라 서양 지오그래피, 유불도의 동양 철학과 서양의 생태학, 환경심리학, 실존주의 철학 같은 여러 학문분야를 두루 섭렵해야만 알 수 있는 다양하고 심오한 장소혼이 배어 있다. 그곳은 외부의 풍수연구자가 산 · 수 · 방위라는 풍수 3대 요소를 가지고 함부로 터를 평가하고 길흉화복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환경결정론적인 풍수논리를 넘어, 그 일대의 자연과 오랫동안 교감해 오면서 그것을 마음속 장소로 내면화시켜 놓은, 내부 거주자들의 능동적이면서도 소중한 환경심리적 미학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흥세거지는 배산임류(背山臨流)의 터에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옥의 배치와 꾸밈새도 독특하며, 무엇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탐방 명소 중의 명소다. 그곳은 땅 무늬와 집 무늬, 그리고 사람 무늬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그 아우라는 내가 '삼상(三相) 명당'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지어내야 했을 정도로 강렬하다. 삼상은 지상(地相), 가상(家相), 심상(心相: 德相을 포함한 개념)을 일컫는다. 지상은 천연의 땅 형상이요, 가상은 그 위에 구축돼 있는 인공 구조물인 집이며, 심상은 그 집에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씨와 덕행을 가리킨다.

인흥세거지는 전통풍수가 추구해온 '자연 명당터 찾아 삼만리'를 뛰어넘는, '주거환경은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명당 가꾸기'정신으로 점철돼 있다. 비보(裨補)미학과 '역발상 풍수'정신이 이 땅 안에서 단연 으뜸이다. 필자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밝히는 인흥세거지의 터 · 집 · 사람과 관련된 이 삼상미학적 텍스트와 콘텍스트 구명(究明)이 그 터와 인연이 있는 남평문씨 후예들에게는 더욱 자긍심을 심어주고, 방문객들에게는 실존공간적 장소 이해와 참명당 여행을 통한 삶의 힐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원과 인흥, 그리고 천수봉의 땅이름[地名] 미학

남평문씨 본리[인흥]세거지에 낡고 오래된 삼층석탑 하나가 놓여 있다. 통일신라 말에 세워진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옛 인홍사(仁弘寺, 고려말에 仁興寺로 개칭됨)의 유적물이다. 죽헌종택에 있는 우물도 동시대의 유물이라지만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것은 또 있다. 바로 화원(花園)과 인흥, 그리고 천수봉(千壽峰)이라는 세 개의 고지명(古地名)이다. 천수봉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만 전해오다가 2003년에 정식으로 행정지명화 됐다. 이 세 지명은 신라와 고려, 양 왕조에 걸쳐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불교 이데올로기적 땅이름들이다.

인흥마을 입구의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남평문씨 세거지는 천수봉에 기대어 입지해 있다. 행정상 명칭은 본리세거지이지만 남평문씨들은 인흥세거지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생긴 본리(本里)라는 행정지명이 같은 달성군 내의 옥포읍과 논공읍, 그리고



인흥세거지의 주산인 천수봉은 시각적으로 비대칭적 형식美를 보여주지만,
물형론적으로는 금불단좌형과 금계포란형이라는 빼어난 상징미학적 내용美를 간직하고 있다.

인근 대구의 달서구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다 유서 깊고 개성 있는 인흥이라는 자연마을 지명을 선호해 사용하는 듯하다. 근년에 세거지 앞에 새로 만든 연못이름을 인흥원(仁興園)이라 지은 것만 봐도 그들의 인흥이라는 곳이름에 대한 애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인흥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1984년에 발행된 『경북지명유래총람』을 보면 인흥마을 동네 입구의 왼편에 있는 산의 형세가 인(仁)자 형이고, 오른편이 흥(興)자 형이어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쓰여 있다. 이후에 나온 모든 지리 관련 기록물들은 그 같은 유래를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해보면 그런 글자 형태를 닮은 지형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 학계의 장소 지명 정체성 왜곡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실감케 해준다. 인흥이라는 지명은 알고 보면 지형이 아니라 절[사찰] 이름에서 파생됐다. 고려말 그곳에 인흥사(仁興社, 당시는 결사체라는 뜻의 社로 표기)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대의 마을을 인흥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인흥사의 전신은 인홍사다.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스님이 여말인 1275년에 인홍사 중창불사를 주관하고 본래 '인홍사'로 불려오던 사찰명을 '인흥사(仁興社)'로 개명했다. 인홍이든 인흥이든 여기에서 말하는 '인(仁)'은 '어질다'는 뜻의 '인'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인'이다. 그 사람은 '능인(能仁)', 곧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킨다. '능인'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석가모니 별칭 중의 하나다. 현재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능인보전, 능인선원, 능인굴, 능인중고, 능인대학원대학교 등도 모두 그 말뜻의 뿌리가 같은 동류(同類)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인홍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고, 인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일으킨다'는 뜻을 지녔다. 경주의 옛 인용사(仁容寺)도 같은 맥락을 지닌 절이름이다. '용(容)'은 '권장하다'는 뜻으로 사용됐고, 인용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권하는 사찰'이라는 뜻이었다. 부처님을 지칭하는 '인'자 대신에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佛法)을 가리키는 '법(法)'자를 넣은 사찰명도 많은데, 홍법사(弘法寺)와 법흥사(法興寺) 같은 이름이 대표적이다.

화원이라는 지명도 인흥처럼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성주목」 '고적'조에, "신라 왕이 꽃을 구경하던 곳이므로 화원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꽃구경을 했다는 왕이 35대 경덕왕(재위 742~765)인지, 아니면 40대 애장왕(재위 800~809)인지가 분명치 않다. 두 가지 주장이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 하기야 『삼국사기』에 설화현(舌化縣)을 화원현으로 고친 것이 경덕왕으로 명기돼 있는 만큼, 직접 꽃구경을 하고 상화대(賞花臺)라는 이름을 붙인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필자가 외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경덕왕이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리덕후이자 불교덕후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서기 757년에 전국 9주의 명칭과 군·현의 지명을 모두 당나라 식으로 바꾸어 한자화했다. 지금의 읍면 단위까지 건드리지 않은 지명이 드물 정도로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재위기간 동안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석굴암 외에도 불국사, 다보탑, 삼층석탑, 황룡사종과 같은 많은 문화재들이 그때 만들어졌다.

나는 화원이라는 지명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경덕왕이 낙동강변 동산에 핀 꽃들을 보고 독창적으로 지은 이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화원은 본래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니 꽃동산의 한자 번역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룸비니를 화원이라 칭하고 있었으며, 화원촌이라는 지명을 쓰는 곳도 있었다. 당나라 제8대 대종 황제에게 만불산을 보내는 등, 그 누구보다도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경덕왕이 수입 불교서적이나 전언 등을 통해 룸비니와 그 번역어인 화원을 모르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그 당시 신라 사회는 화엄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연화장 세계, 즉 불국토관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것은 분명 그가 낙동강변의 화원동산을 룸비니동산과 유비(類比)시켰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콘텍스트[맥락환경]다. 화원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경덕왕이 동산에서 꽃구경을 할 때 룸비니동산과 그 한자어 번역어인 화원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라 그 일대를 그렇게 이름지은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리와 불교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던 경덕왕의 두 분야 덕질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화원이라는 지명인 까닭이다.

요즘 인흥세거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그곳이 옛 절터였다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설령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크게 훼손된 삼층석탑 하나뿐이니 기껏해야 안내 표지판에 적혀 있는 몇 자 안 되는 글귀만 읽어보는 정도다. 그러나 인흥사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진짜 고갱이는 따로 있다. 바로 세거지를 보듬어 안고 있는 천수봉이라는 불교적 산이름이 갖는 기호학이다. 불교에서 '천(千)'은 무량(無量)·원만(圓滿)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천수(千壽)와 만수(萬壽)는 무량수(無量壽)와 같은 뜻이고, 그것은 곧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영생불멸의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고승들은 사바세계[이승]가 곧 극락정토요, 현실세계와 극락세계가 불이(不二)라고 주장하면서, 현실 속에서 극락세계의 실현을 희구하였다. 천수봉의 생김

새[풍수 형국 또는 물형]가 '금불단좌형(金佛端坐形, 부처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터에 인흥사가 있었던 시절에는 불국토 관념에 입각해 천수봉을 아미타불로 삼고,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사찰 경내를 현실 속 극락정토로 여겼던 게 틀림없다.

그 같은 극락정토명당 관념은, 인흥사가 폐사되고 그 터가 남평문씨 세거지로 바뀌면서 양택명당 관념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천수봉의 형국명도 예전의 불가(佛家)적인 금불단좌형이라는 풍수형국명에서 유가(儒家)적인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명당으로 바뀌었다.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이고, 명당 형국명은 일종의 사회적 의미 구성물이다. 그러기에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바뀌면 형국명도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 조성된 인흥원에 들어서니 때마침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과 불두화가 극락정토[현재의 남평문씨 인흥세거지]를 굽어보고 있는 천수봉을 배경으로 활짝 피어 있다. 연꽃은 불교에서 정토세계를 상징하는 꽃이다. 불력(佛力)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터의 역사적 장소혼이 지난 반세기가량 실종됐던 연꽃을 다시 불러들인 것일까? 꽃을 보며 인흥과 화원(花園), 천수봉이라는 불교적 고지명을 머리에 떠올리니 사뭇 다른 장소 분위기와 정감이 인다. 아마도 단순한 이성적 역사 시간여행을 뛰어넘는, 옛 신라인과 고려인의 불국토적 장소혼과 교감하는 특별한 감성미학 답사여행이기 때문이리라.

인흥세거지 일대의 땅 무늬(地相) 풍수미학

인흥세거지는 아름다운 한옥과 꽃 조경, 2만여 권의 책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문중 서고를 갖추는 등, 특색 있는 주거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세거지의 자연환경은 과연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 비슬산 북쪽의 여러 골짜기들 중, 한 골짜기의 중간 지점에 천수봉이 위치해 있고, 그 산에 기대어 서남쪽을 향해 세거지가 터 잡고 있다. 세거지의 우측은 곧장 너른 들판으로 연결되고, 서북방향에 놓인 두 지맥 사이의 넓은 수구(水口)는 훤히 열려 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명당 보국(保局) 지형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집터로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흥세거지의 형식미학적 특징일 따름이다. 형식미학은 터의 판국을 이루는 산과 물 같은 자연지물(自然地物)의 개별적 모양새나 혹은 집합적 어울림에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그런데 풍수미학에는 내용미학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은 땅 무늬 형상이 지닌 형이상학적 의미와 상징성, 생태적 미 등을 주로 평가한다. 인흥세거지의 자연환경은 비록 형식미학 점수는 낮지만 내용미학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

예나 지금이나 그 터를 점거한 이들이 고전풍수의 '풍수무전미(風水無全美, 풍수적으로 흠결이 없는 온전히 아름다운 터는 없다)'라는 아포리즘을 거울삼아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터 비보(裨補)를 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흥세거지 일대의 땅 무늬[地相] 미학세계는 바로 그 비보 풍수적 내용미(美)를 골자로 한다. 삶터의 완전미(美)를 끝없이 추구해온 그 비보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보자.

첫째는, 세거지의 주산인 천수봉이라는 산이름의 비보미(美)다. 세거지에서 바라보면 요(凹)형 안산(案山) 너머로 조산(朝山)격의 높은 함박산[작약산]이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승용차를 몰 때 앞쪽에 거대한 덤프트럭이 가로막아 주행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아마도 인홍사라는 절을 세울 때부터 그런 환경심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됐을 것이다. 전통풍수에서도 명당의 앞산이 뒷산보다 높은 것을 금기시한다. 신하 · 손님 · 아내에 비정(比定)되는 안산이 임금 · 주인 · 남편에 해당하는 주산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으로 의미부여된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천수봉에서 함박산으로 이어지는 시계축(視界軸, 조망축)을 사찰 입지의 풍수적 중심축, 즉 안대(案對)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천수봉이 지닌 특장점, 즉 불룩한 잉(孕) 지형 때문이었다. '잉'이란 혈(穴) 자리 바로 뒤에 마치 출산을 앞둔 여인의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지형을 말한다. 혈 자리에 기운을 공급하는 지기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통풍수에서는 '잉이 없으면 진정한 명당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잉'을 좌청룡 · 우백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왔던 묘안이 바로, 하늘이 내린 '잉' 지형도 활용하고 또 함박산의 능압(凌壓)도 피할 수 있는 지명(地名) 비보책(策)이었다. 주산보다 높은 함박산의 위세를 진압하고자 주산명(主山名)을 아예 불국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천수봉으로 이름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일자문성 토형체인 손님격의 함박산이 종을 엎어놓은 모양의 금형체인 주인격의 천수봉을 토생금(土生金)의 상생원리에 따라 보좌해준다는, 그럴듯한 내용미학적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로써 인흥사 터[현재의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터]는 비슬산 천왕봉에서 삼필봉을 지나 천수봉까지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생동감 넘치는 내맥[來脈, 來龍]축과, 천수봉에서 凹형 안산과 함박산으로 이어지는 동서



까치봉 줄기 凹형 안부(鞍部) 너머로 보이는 인흥세거지 서남방향 조산(朝山)격의 함박산과,
삶터의 완전美를 추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비보해 놓은 본리1리[인흥마을]의 북쪽방향 수구막이용 조산(造山)모데기(원 안).
세거지 명당 안대축과 본리동의 水口비보 경관물이 공교롭게도 일직선으로 겹쳐 보인다.

방향의 입지명당 안대(案對)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뚜렷한 풍수 상징축을 갖춘, 빼어난 입지 정체성(identity)을 지닌 명당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둘째는, 세거지의 우측에 조성돼 있는 우백호 지맥 역할을 하는 비보숲과, 인흥마을 동구(洞口)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산(造山)모데기라는 비보경관물의 미학세계다. 세거지의 주산인 천수봉은 '잉'이 탁월하지만 좌 · 우측 용호지맥이 무척 짧다. 명당을 감싸는 보국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터의 왼쪽[남쪽]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된 내청룡 지맥과 그 바깥쪽에 놓인 외청룡 지맥이 집터를 어느 정도 감싸주지만, 오른쪽[북쪽]은 완전히 평지로 된 들판이나 다름없어 그대로 방치하면 북서쪽으로 열려 있는 골짝 입구를 통해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거지의 오른쪽에 백호지맥 역할을 대신해 줄 소나무숲을 동서 방향으로 길게 조성했다. 이 솔숲이 바람을 막는 기능 외에도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명당수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수구막이 역할과 생태축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일종의 유교적 비보 경관물로서 인흥세거지를 길지로서의 위의(威儀)를 갖추도록 해주는 등, 그야말로 팔방미인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줬을 법하다. 현재는 솔숲이 많이 훼손되어 예전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흥세거지와 비슷한 입지 지형과 수구막이 비보숲을 보유한 영양군의 주실마을숲이 온전한 형태로 잘 보전돼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이 백호지맥 대용 비보 소나무숲과, 세거지 앞 도로변 논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돼 있는 돌로 쌓은 조산(造山)모데기는 무척 대조적이다. 둘 다 자연환경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적 실천 경관물이기는 하지만, 소나무숲은 다용도의 상당히 실용성이 높은 풍수 비보물인 반면 조산모데기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비보물이다. 하지만 원통형 돌탑인 이 조산모데기에는, 북서쪽으로 확 트인 마을의 수구를 인공조산으로 좁혀서 마을의 부(富)와 재복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인흥마을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 돌탑은 삶터를 조금이라도 완전체 명당에 가깝도록 만들어보려는 미학 정신에서 비롯된 수구막이용 비보풍수 유적물인 것이다.

셋째는, 인흥에 살고 있는 남평문씨 후예들이 구축해 놓은 환경심리적 방위 비보미이다. 인흥세거지의 내사산(內四山,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 자연지맥 구성은 완전치가 않다. 특히 좌청룡과 우백호 지맥의 발달이 미약하다. 그런 단점을 남평문씨들은 멀리서 세거지의 외곽을 두르고 있는 주요 방위별 명산에 조상묘역을 조성하고 그것을 외사산(外四山)으로 삼으면서 극복했다. 그 외사산은 집터를 품은 천수봉과, 조상 묘를 품고 있는 서 · 남 · 북 방향의 함박산 · 장단산 · 죽곡산이다. 천수봉의 자연지형적 내(內) 사신사에 이 인문적 외(外) 사신사를 겹으로 둘러 정신적 위요감을 확보한 것이다.

일단 기준점은 세거지를 품고 있는 천수봉이다. 그 봉우리를 중심으로 북쪽의 강창 죽곡에는 인흥세거지 터를 닦았던 인산재 문경호의 묘역이, 남쪽의 장단산에는 집안의 대들보를 일으켜 세웠던 후은 문봉성의 묘역이, 그리고 서쪽 함박산에는 가문을 꽃피운 수봉 문영박의 묘소가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이 세 사람은 남평문씨 인흥 가문을 명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불멸의 주인공들이다. 세거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지금도 집 밖으로 외출할 때는 죽곡산을 향하고, 집으로 들어올 때는 장단산을 향하며, 집 마당에서는 함박산을 향한다.

이쯤 되면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법하다. 『인흥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죽헌 문달규는 선대가 한 것과 같이 선고 인산재 묘소 가까이 추모재라는 재실을 지어 해마다 반년 넘게 그곳에 머물렀고, 옆에 공부방도 마련하여 자손들을 수업하게 하였다. 큰집으로 출계한 아들 문봉찬도 현 화원읍 명곡동에 회사정(會士亭)을 지어 낙동강 건너 할아버지의 산소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시회(詩會)도 가졌다.’

이것은 그야말로 실존공간의 구축과 그 활용 미학의 극치다. 지상(地相)과 심상(心相)의 통섭적 합일(合一)이다. 인흥문씨를 성립시킨 지인감응(地人感應)의 철학적 미학세계다. 인흥세거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 파워와 자존감 높은 명당 의식이 깃들어 있다.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명덕초등학교 옆)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 ~ 금)	09:00 ~ 19:00		09:00 ~ 18:00
주말 (토 ~ 일)	09:00 ~ 17:00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관외 대출중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유의사항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연장불가)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무인기기 반납불가)
- 문의 : ☎ 053-257-2280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 · 금요일 14시 ~ 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 · 세무상담실
- 문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053-217-0228

발행인 박영석
편집인 심충택
편집위원 김수영, 김순재, 오경묵 임상현, 정용균
홈페이지 www.228.or.kr
인스타그램 228minju(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쇄 2024년 12월 16일
발행 2024년 12월 20일
인쇄처 (주)우리정밀인쇄 Tel. 053) 423 - 1566

· 『2·28횃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28횃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28횃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Tel. 053-247-2285

『2·28횃불』은 비도공 서적 용지인 두성페이퍼 아도니스러프 76g으로 제작됩니다.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44
9 772983 006003
ISSN 2983-0060